

# 2021년 경상남도 사회조사 결과(요약)

2021. 12.



경상남도  
디지털정책담당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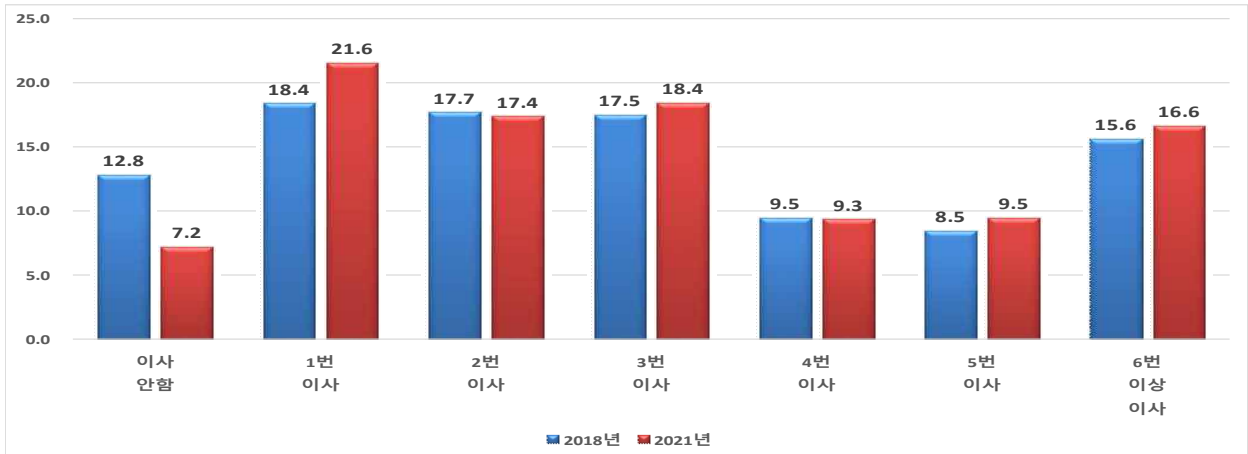
# 목 차

<b>I. 주거교통</b>	<b>1</b>
1. 결혼 후 내 집 마련 시까지 이사횟수	1
2. 지역 거주기간	1
3. 향후 정주의사	2
4. 주거환경 만족도	2
5. 지역민으로서의 자부심과 소속감	3
6. 거주 지역사회에 대한 전반적 견해	3
7. 통근·통학 지역, 교통수단 및 소요시간	3
8. 교통수단 만족도	4
9. 시내버스/마을버스 이용시 불만족 및 만족 이유	5
10. 지역 교통문제 해결방안	5
11. 지역 교통안전 해결 방안	5
12. 보행만족도	6
<b>II. 문화여가</b>	<b>7</b>
1. 시간사용에 대한 만족도	7
2. 주말(공휴일)의 여가 활용	7
3. 여가활동 만족도	8
4. 문화·예술·체육·행사 관람	8
5. 지역문화제 개최에 대한 견해	9
6. 도내 관광 경험 및 개선점	9
7. 타 지역민에게 경남 관광지 소개	10
<b>III. 일자리노동</b>	<b>11</b>
1. 일자리 충분도 및 지역의 실업정도	11
2. 지역의 고용전망 및 경제전망	11
3. 일자리 만족도	12
4. 일하지 않은 주된 이유	12
5. 소상공인(자영업자) 일자리 지원 분야	13
6. 일자리 창출 지원 분야	13
7. 청년 일자리 지원 분야	14
8. 청년에게 좋은 일자리	14
9. 청년 일자리 확대 분야	15
10. 노인 일자리 지원 분야	15
<b>IV. 소득소비</b>	<b>16</b>
1. 생계유지 어려움 경험 정도	16
2. 가구 월평균 소득	16
3. 소득 만족도 및 장래 가구 소득에 대한 견해	17
4.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	17
5. 소비생활 만족도	18
6. 가구의 부채정도와 이유	18
7. 노후대비 소득보장	19
8. 삶에 대한 만족감	19
<b>V. 교육</b>	<b>20</b>
1. 학교교육의 효과에 대한 인식	20
2. 교육환경 만족도	21
<b>VI. 부가조사</b>	<b>22</b>
1. 청년인구 유출 및 유입	22
2. 코로나19로 인한 일상 변화	22
3. 코로나19로 인한 행동 변화	23
<b>[참고] 조사개요</b>	<b>24</b>

# I. 주거교통

## 1. 결혼 후 내 집 마련 시까지 이사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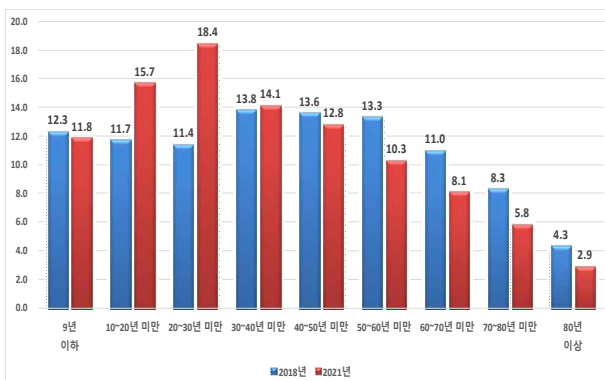
- 결혼 후 내 집 마련 시까지 이사횟수는 '1번 이사'가 21.6%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다음으로 '3번 이사' 18.4%, '2번 이사' 17.4%, '6번 이상 이사' 16.6% 등의 순으로 나타남 (평균 3.5번 이사)
- 2018년에 비해 '이사 안함'이 5.6%p 감소함



## 2. 지역 거주기간

- 경상남도 거주기간은 '20~30년 미만'이 18.4% 가장 많이 나타났고, 다음으로 '10~20년 미만' 15.7%, '30~40년 미만' 14.1%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거주기간은 35.0년으로 나타남
- 경남도내 시군 거주기간은 '20~30년 미만'이 18.8% 가장 많이 나타났고, 다음으로 '10~20년 미만' 17.4%, '30~40년 미만' 14.1%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거주기간은 32.1년으로 나타남

<경상남도 거주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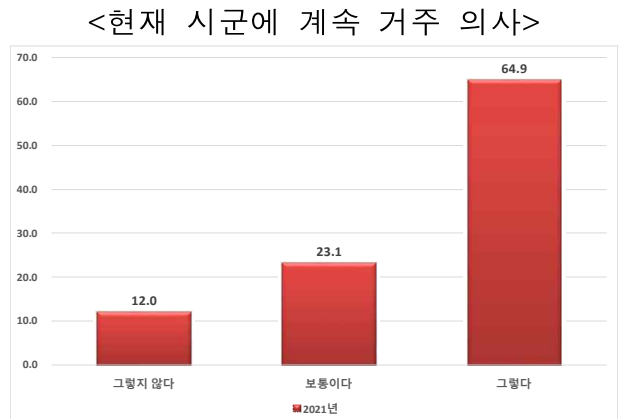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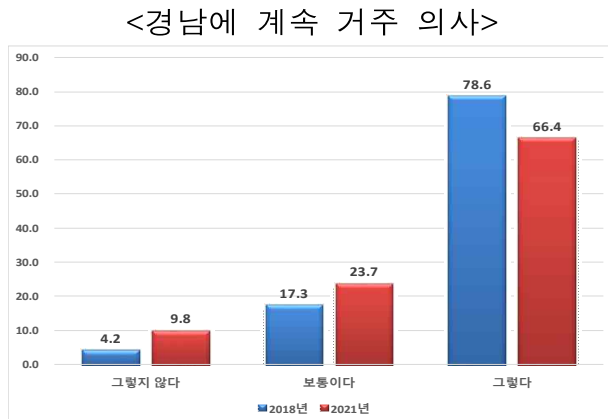


<경남도내 시군 거주기간>



### 3. 향후 정주의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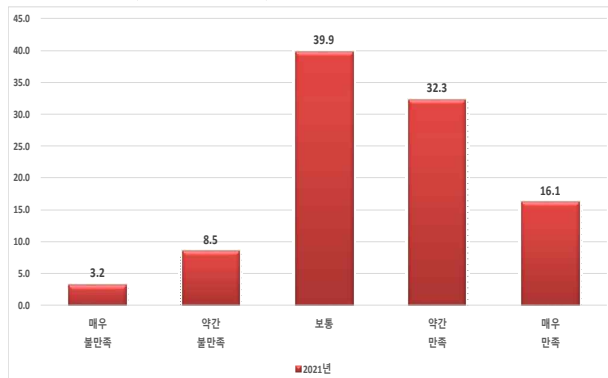
- 경남에 계속 거주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그렇다'가 66.4%, '보통이다' 23.7%, '그렇지 않다' 9.8% 순으로 나타남
  - 2018년에 비해 '그렇다'가 12.2%p 감소함
- 현재 시군에 계속 거주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그렇다'가 64.9%, '보통이다' 23.1%, '그렇지 않다' 12.0%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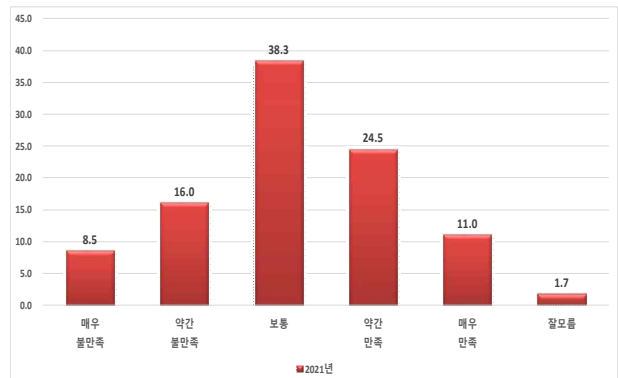
### 4. 주거환경 만족도

- 주거환경 만족도는 상하수도, 도시가스, 도로 등 기반시설은 '만족'이 48.4%로 나타났고, 주거지역내 주차장 이용은 '만족'이 35.5%, 주택의 경우 '만족'이 47.2%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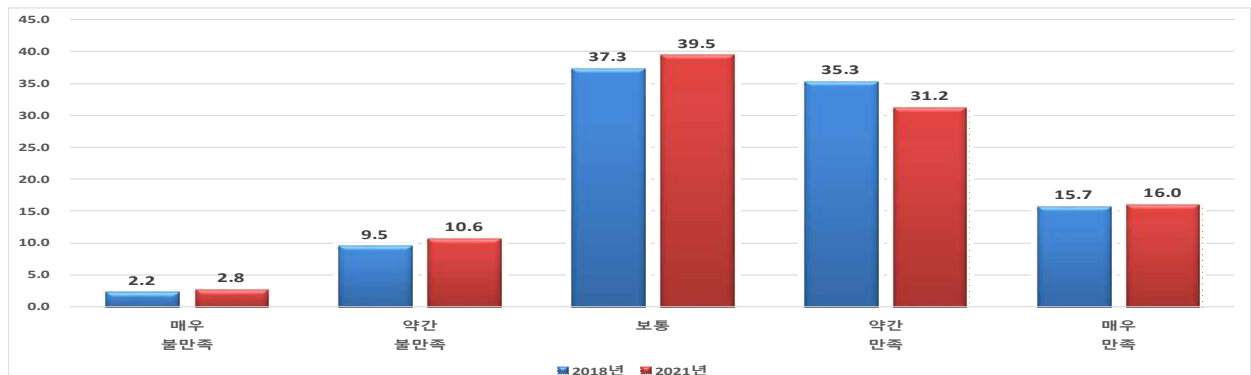
<상하수도, 도시가스, 도로 등 기반시설 만족도>



<주거지역내 주차장 이용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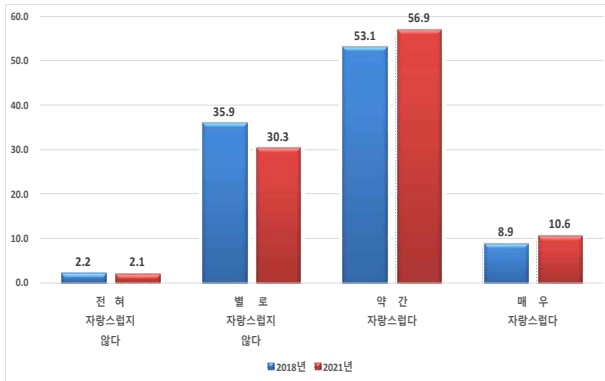
<주택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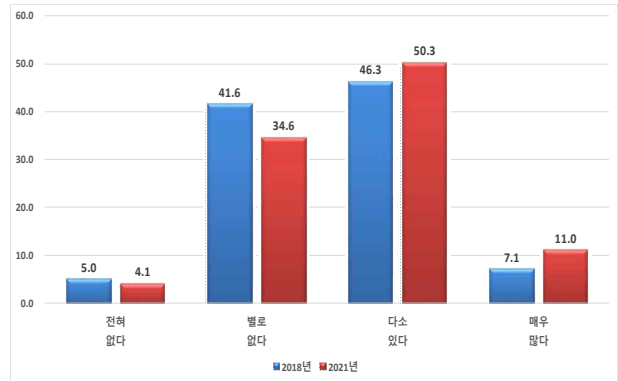
## 5. 지역민으로서의 자부심과 소속감

- 경상남도 도민으로서의 자부심은 '자랑스럽다'가 67.5%, '자랑스럽지 않다' 32.4%로 나타났고, 2018년에 비해 '자랑스럽다'가 5.5%p 상승함
- 현재 살고있는 동네에 대한 소속감은 '많다'가 61.3%, '없다' 38.7%로 나타났고, 2018년에 비해 '많다'가 7.9%p 상승함

<경상남도 도민으로서의 자부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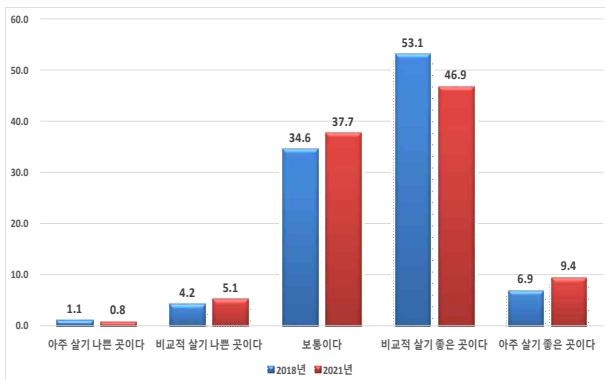
<현재 살고있는 동네에 대한 소속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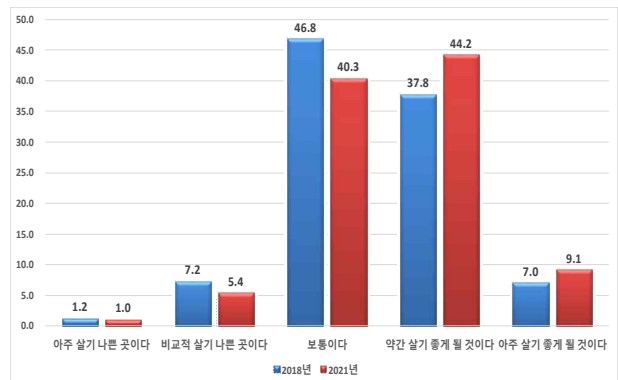
## 6. 거주 지역사회에 대한 전반적 견해

- 현재 지역사회에 대한 견해는 '살기 좋은 곳이다' 56.3%로 나타났고, 2018년에 비해 3.7%p 감소함
- 향후 1~2년 이후 지역사회에 대한 전망은 '살기 좋게 될 것이다' 53.3%로 나타났고, 2018년에 비해 8.5%p 증가함

<현재 지역사회에 대한 견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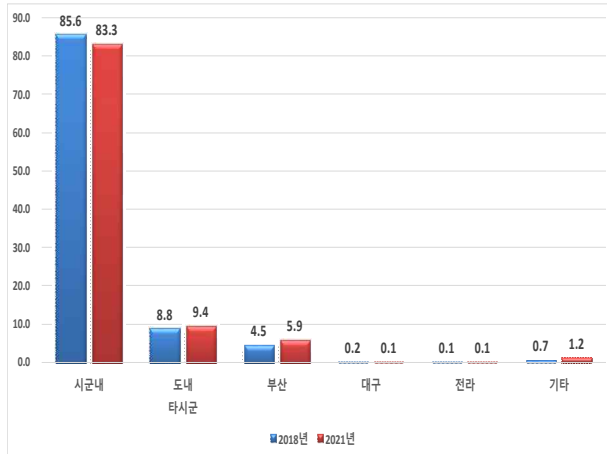
<향후 1~2년 이후 지역사회에 대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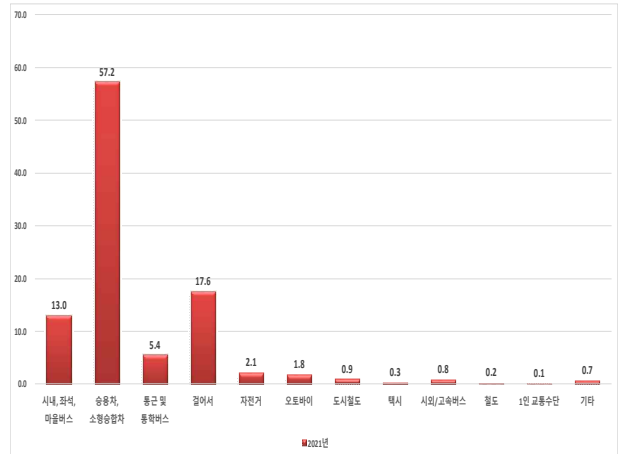
## 7. 통근·통학 지역, 교통수단 및 소요시간

- 통근·통학을 하는 사람은 62.0%(2018년 65.4%)로 나타났고, 평균소요시간은 23.0분(2018년 23.8분)으로 나타남
- 통근·통학 지역은 '시군내'가 83.3%, '도내 타시군' 9.4%, 부산 5.9%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통근·통학 교통수단은 '승용차, 소형승합차' 57.2%, '걸어서' 17.6%, '시내, 좌석, 마을 버스' 13.0% 등의 순으로 나타남

<통근통학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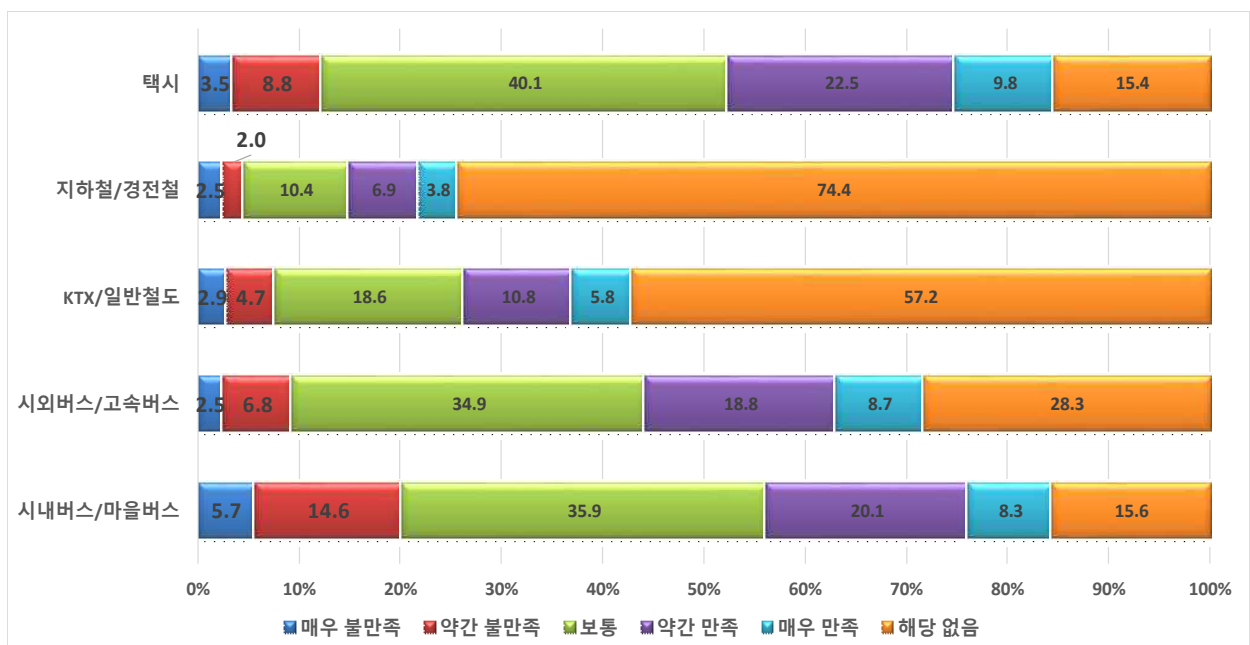


<통근통학 교통수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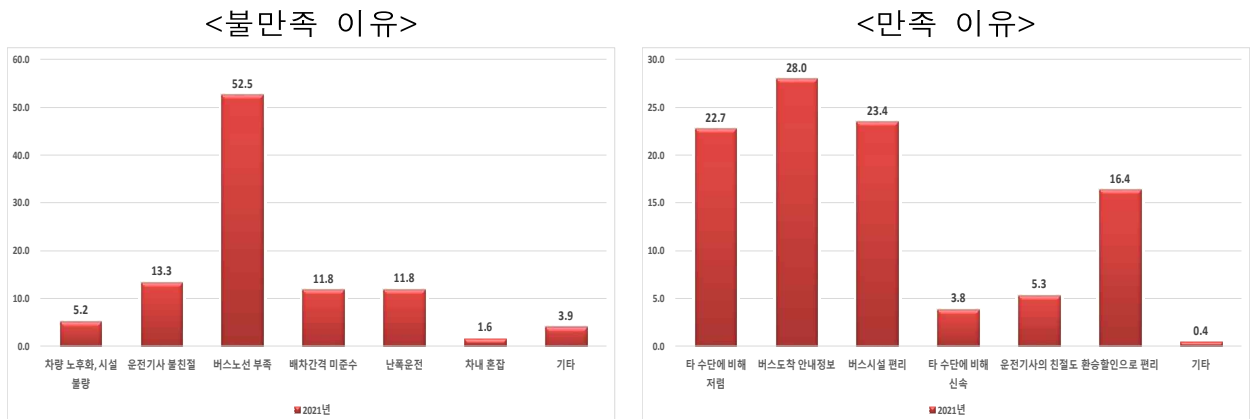
## 8. 교통수단 만족도

- 택시는 '만족' 32.3%, '보통' 40.1%, '불만족' 12.3%, '해당없음' 15.4%로 나타남
- 지하철/경전철은 '만족' 10.7%, '보통' 10.4%, '불만족' 4.5%, '해당없음' 74.4%로 나타남
- KTX/일반철도는 '만족' 16.6%, '보통' 18.6%, '불만족' 7.6%, '해당없음' 57.2%로 나타남
- 시외버스/고속버스는 '만족' 27.5%, '보통' 34.9%, '불만족' 9.3%, '해당없음' 28.3%로 나타남
- 시내버스/마을버스는 '만족' 28.3%, '보통' 35.9%, '불만족' 20.3%, '해당없음' 15.6%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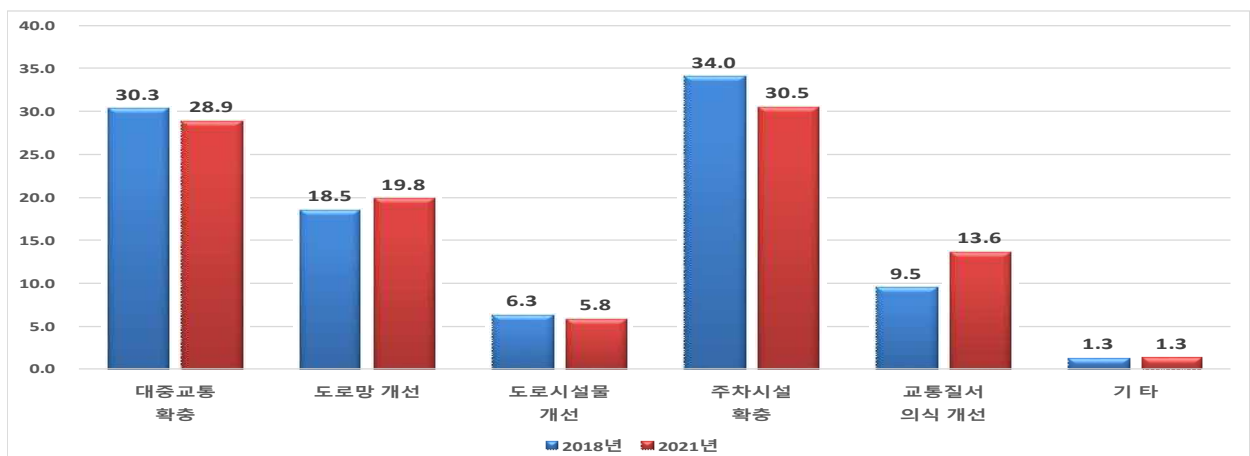
## 9. 시내버스/마을버스 이용시 불만족 및 만족 이유

- 시내버스/마을버스 이용시 불만족 이유는 '버스노선 부족'이 52.5%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다음으로 '운전기사 불친절' 13.3%, '배차간격 미준수' 11.8%, '난폭운전' 11.8%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시내버스/마을버스 이용시 만족 이유는 '버스도착 안내정보'가 28.0%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다음으로 '버스시설 편리' 23.4%, '타 수단에 비해 저렴' 22.7%, '환승할인으로 편리' 16.4% 등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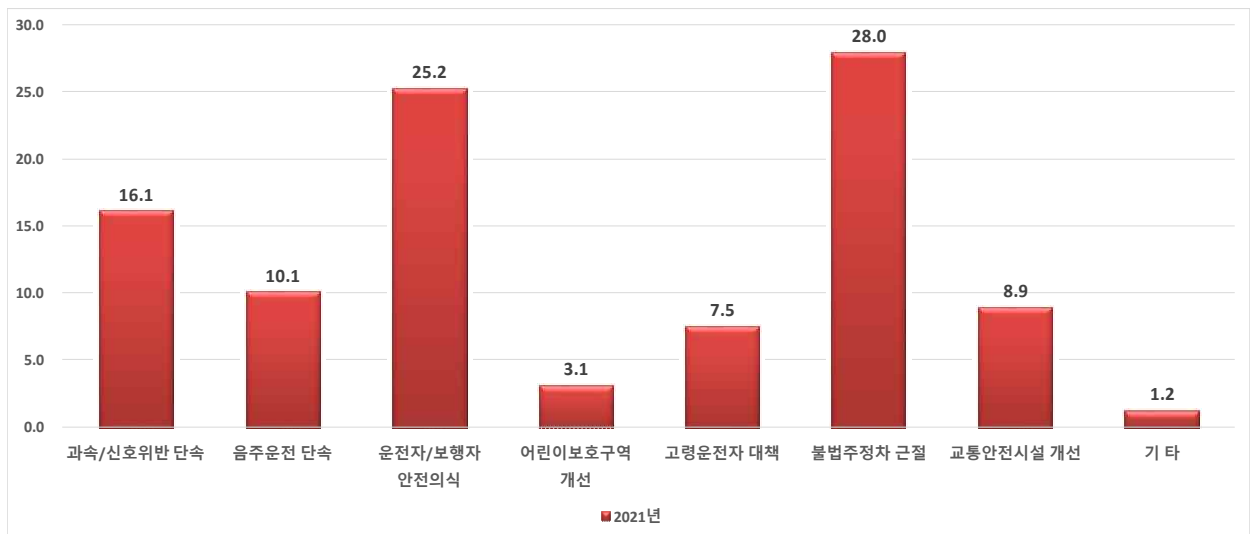
## 10. 지역 교통문제 해결방안

- 지역 교통문제 해결방안으로는 '주차시설 확충'이 30.5%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다음으로 '대중교통 확충' 28.9%, '도로망 개선' 19.8%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교통질서 의식 개선'은 2018년에 비해 4.1%p 증가함



## 11. 지역 교통안전 해결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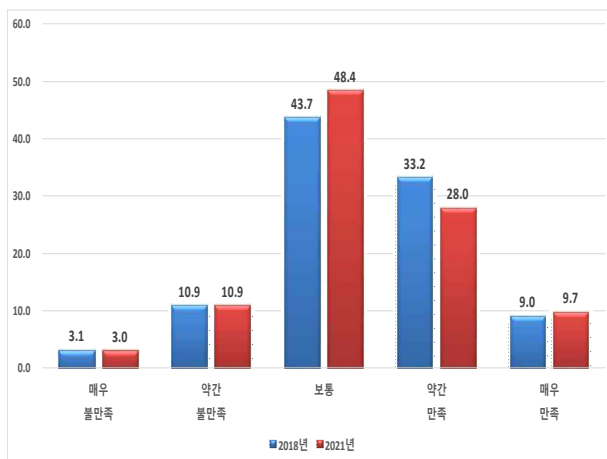
- 지역 교통안전 해결 방안으로는 '불법주정차 근절'이 28.0%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다음으로 '운전자/보행자 안전의식' 25.2%, '과속/신호위반 단속' 16.1%, '음주운전 단속' 10.1% 등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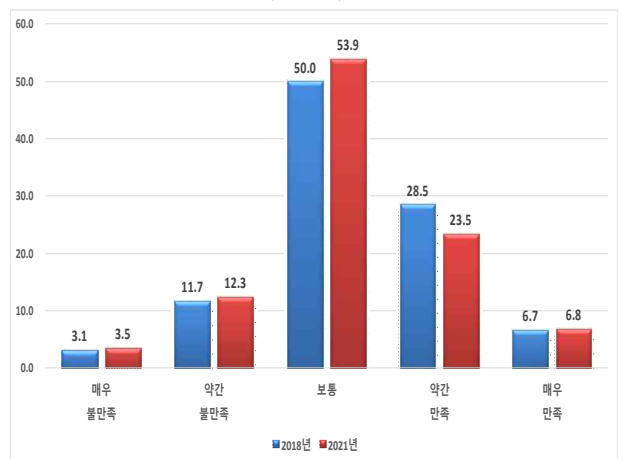
## 12. 보행만족도

- 주거지역 인근 보행만족도는 '만족'이 37.7%, '보통' 48.4%, '불만족' 13.9%로 나타났으며, '만족'의 경우 2018년에 비해 4.5%p 감소함
- 시내(읍내) 지역 보행만족도는 '만족'이 30.3%, '보통' 53.9%, '불만족' 15.8%로 나타났으며, '만족'의 경우 2018년에 비해 4.9%p 감소함

<주거지역 인근>



<시내(읍내)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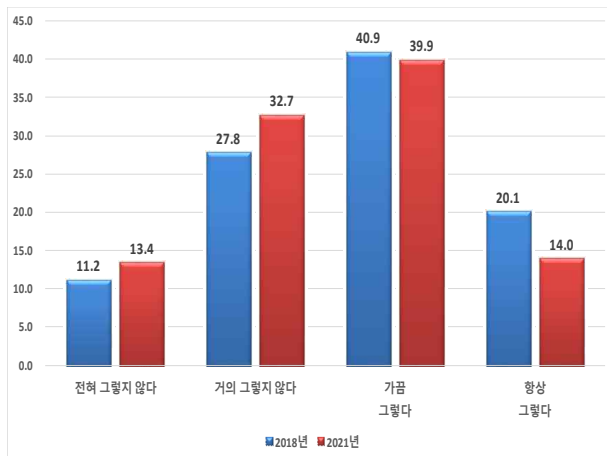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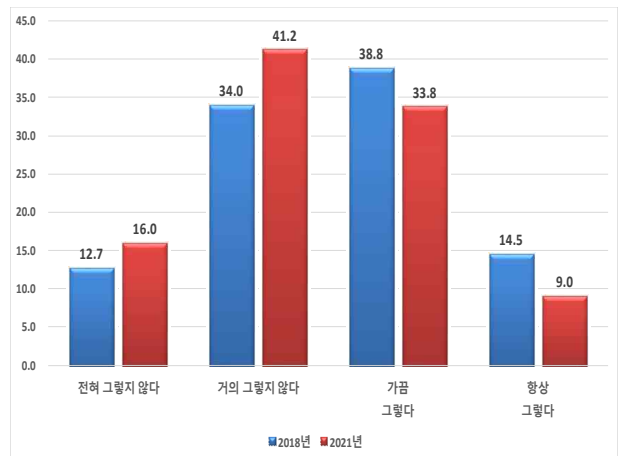
## 1. 시간사용에 대한 만족도

- 평일에 시간이 부족한가에 대한 응답은 '그렇다'가 53.9%, '그렇지 않다' 46.1%로 나타남
  - '그렇지 않다'는 2018년에 비해 7.1%p 증가함
- 주말에 시간이 부족한가에 대한 응답은 '그렇다'가 42.8%, '그렇지 않다' 57.2%로 나타남
  - '그렇지 않다'는 2018년에 비해 10.5%p 증가함

<평일 시간 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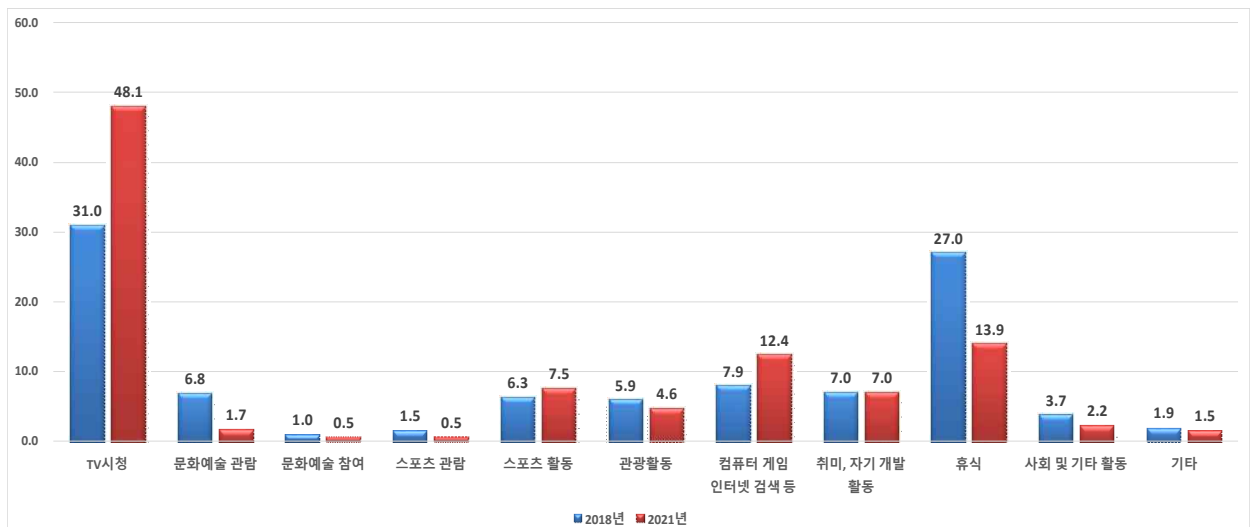


<주말 시간 부족>



## 2. 주말(공휴일)의 여가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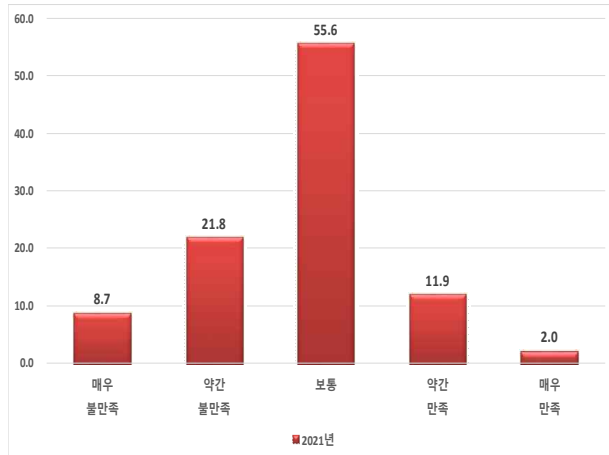
- 주말(공휴일)의 여가시간을 48.1%가 'TV 시청'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휴식' 13.9%, '컴퓨터게임, 인터넷 검색 등' 12.4% 등의 순으로 나타남
  - 2018년에 비해 '휴식'이(13.1%p) 가장 크게 감소함
  - 2018년에 비해 'TV 시청'이(17.1%p) 가장 크게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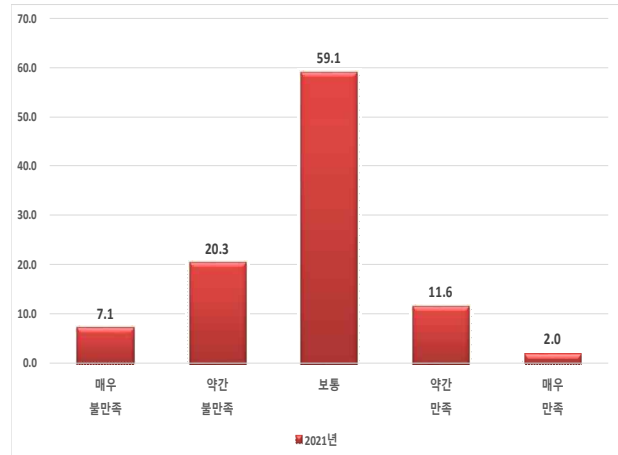
### 3. 여가활동 만족도

- 문화여가시설 만족도는 '만족'이 13.9%, '보통' 55.6%, '불만족' 30.5%로 나타남
- 전반적인 여가활동 만족도는 '만족'이 13.6%, '보통' 59.1%, '불만족' 27.4%로 나타남

<문화여가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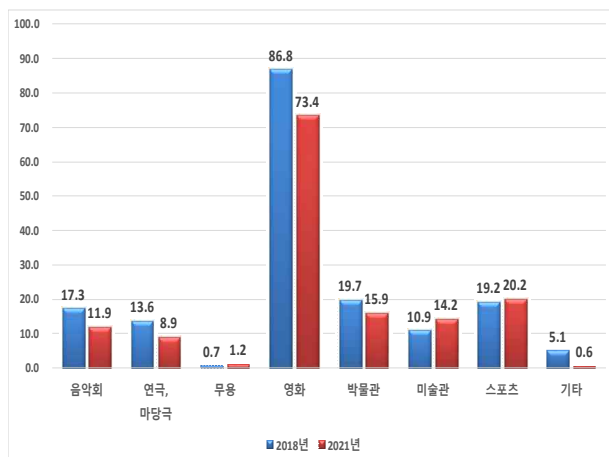
<전반적인 여가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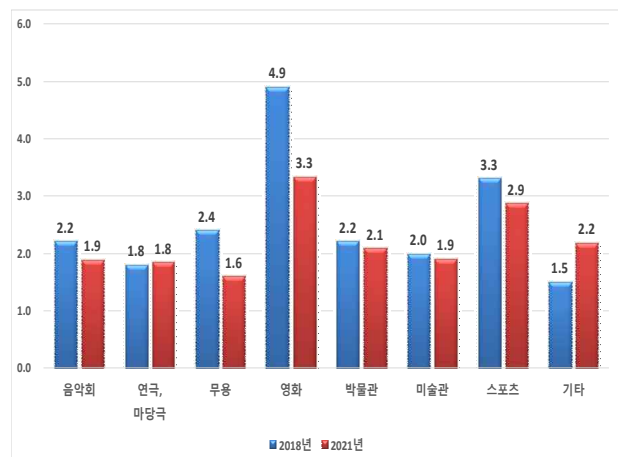
### 4. 문화·예술·체육·행사 관람

- 문화·예술·체육·행사 관람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20.8%(2018년 56.7%)로 나타났고, 관람의 종류는 '영화'가 73.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스포츠' 20.2%, '박물관' 15.9%, '미술관' 14.2%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문화·예술·체육·행사 평균 관람 횟수는 4.1회(2018년 4.4회)로 나타났고, 종류별로는 '영화'가 3.3회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스포츠' 2.9회, '박물관' 2.1회, '미술관' 1.9회, '음악회' 1.9회 등의 순으로 나타남

<관람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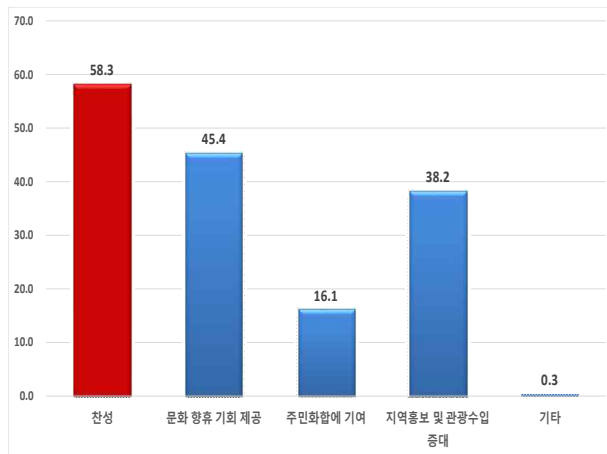
<관람 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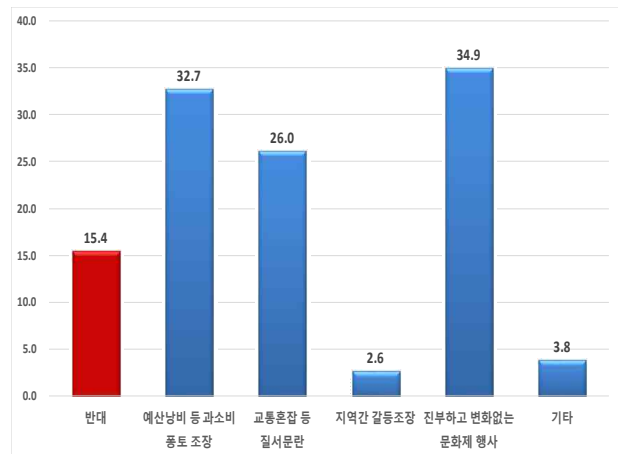
## 5. 지역문화제 개최에 대한 견해

- 지역문화제 개최에 '찬성'하는 사람은 58.3%로 나타났고, 찬성하는 이유는 '문화 향유 기회 제공'이 45.4%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다음으로 '지역홍보 및 관광수입 증대' 38.2%, '주민화합에 기여' 16.1%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지역문화제 개최에 '반대'하는 사람은 15.4%로 나타났고, 반대하는 이유는 '진부하고 변화없는 문화제 행사'가 34.9%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다음으로 '예산낭비 등 과소비 풍토 조장' 32.7%, '교통혼잡 등 질서문란' 26.0% 등의 순으로 나타남

<찬성하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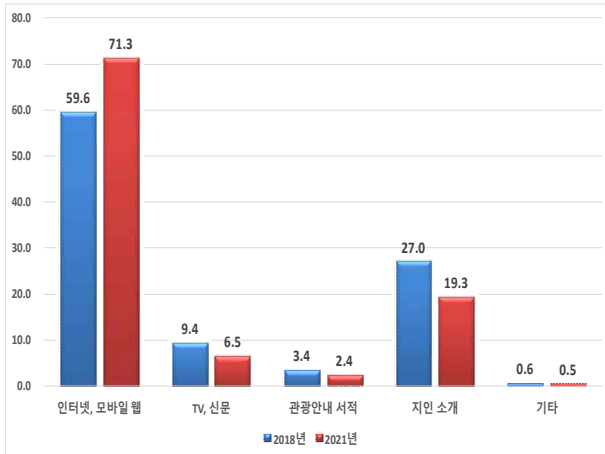
<반대하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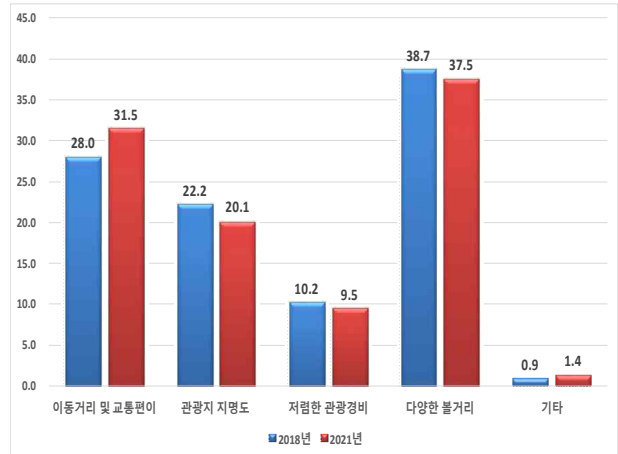
## 6. 도내 관광 경험 및 개선점

- 경남 도내 관광 경험이 '있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36.8%(2018년 55.7%)로 나타남
- 관광지 정보 취득 경로는 '인터넷, 모바일 웹'이 71.3%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다음으로 '지인 소개' 19.3%, 'TV, 신문' 6.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2018년에 비해 '인터넷, 모바일 웹'이 크게 증가하였고, '지인 소개'가 크게 감소함
- 관광지 선택 이유로는 '다양한 볼거리'가 37.5%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이동거리 및 교통편이' 31.5%, '관광지 지명도' 20.1%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관광지 개선점으로는 '다양한 채널의 관광정보 제공'이 34.3%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음식점 위생 개선 및 맛집 발굴 안내' 23.3%, '바가지 요금 근절' 20.6%, '숙박시설의 개선 및 확충' 13.3% 등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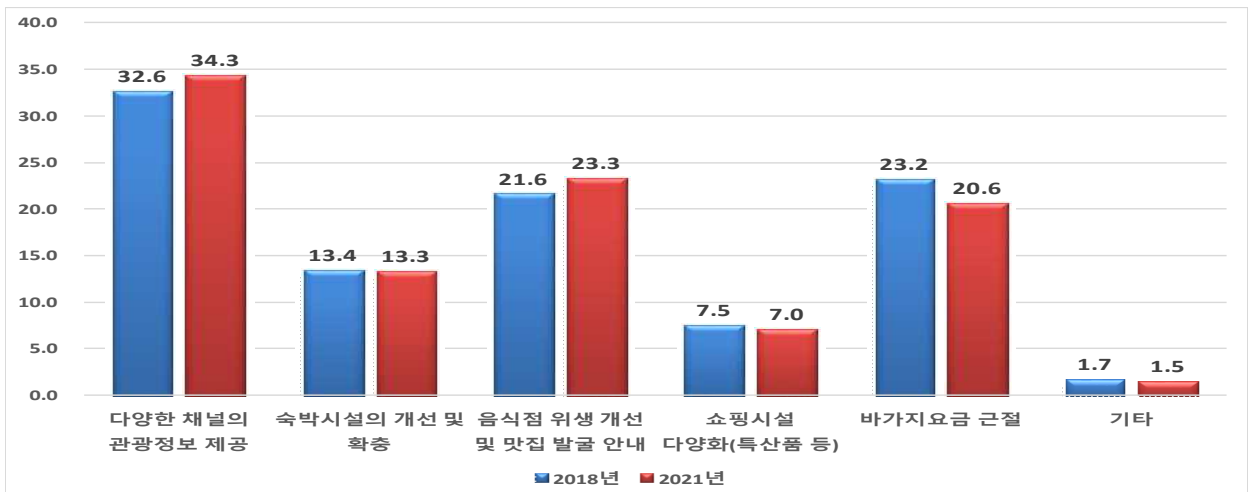
<관광지 정보 취득 경로>



<관광지 선택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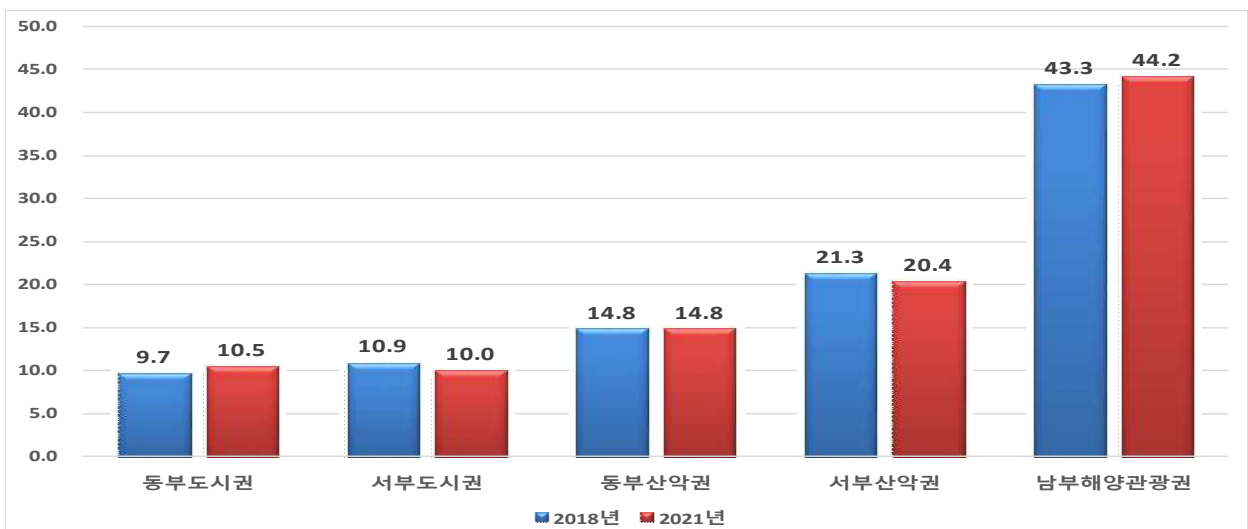


<관광지 개선점>



## 7. 타 지역민에게 경남 관광지 소개

- 타 지역민에게 소개하고 싶은 경남의 관광지는 '남부해양관광권'이 44.2%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서부산악권' 20.4%, '동부산악권' 14.8%, '동부도시권' 10.5%, '서부도시권' 10.0%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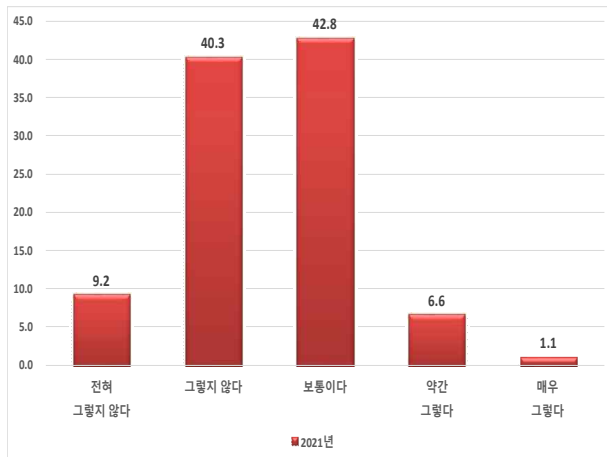


### III. 일자리 노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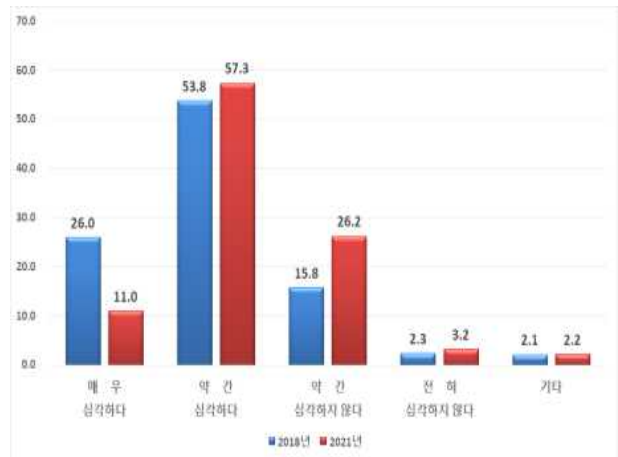
#### 1. 일자리 충분도 및 지역의 실업정도

- 일자리 기회의 충분도는 '그렇다'가 7.7%, '그렇지 않다' 49.5%로 나타남
- 지역의 실업정도는 '심각하다'가 68.3%, '심각하지 않다' 29.4%, '기타' 2.2%로 나타남
- 2018년에 비해 '심각하다'의 응답이 11.4%p 감소함

<일자리 충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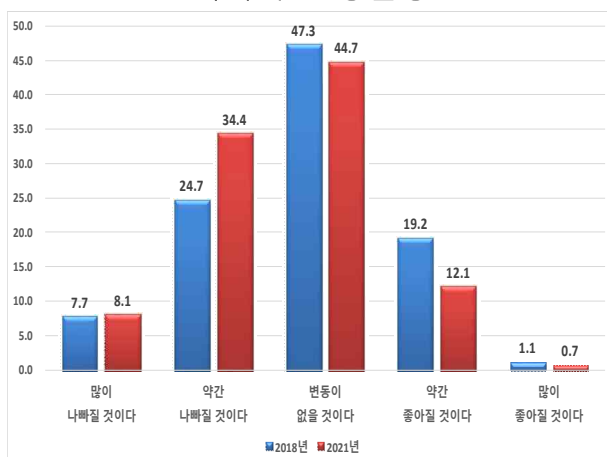
<지역의 실업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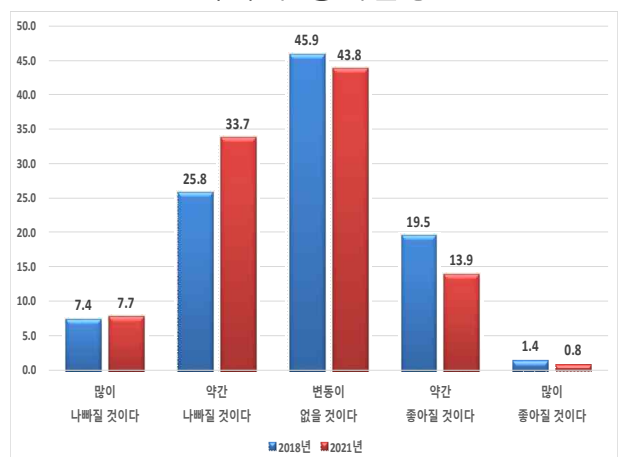
#### 2. 지역의 고용전망 및 경제전망

- 지역의 고용전망은 '나빠질 것이다'가 42.5%, '좋아질 것이다' 12.8%로 나타남
- 2018년에 비해 '나빠질 것이다'는 10.0%p 증가했고, '좋아질 것이다'는 7.5%p 감소함
- 지역의 경제전망은 '나빠질 것이다'가 41.4%, '좋아질 것이다' 14.7%로 나타남
- 2018년에 비해 '나빠질 것이다'는 8.3%p 증가했고, '좋아질 것이다'는 6.2%p 감소함

<지역의 고용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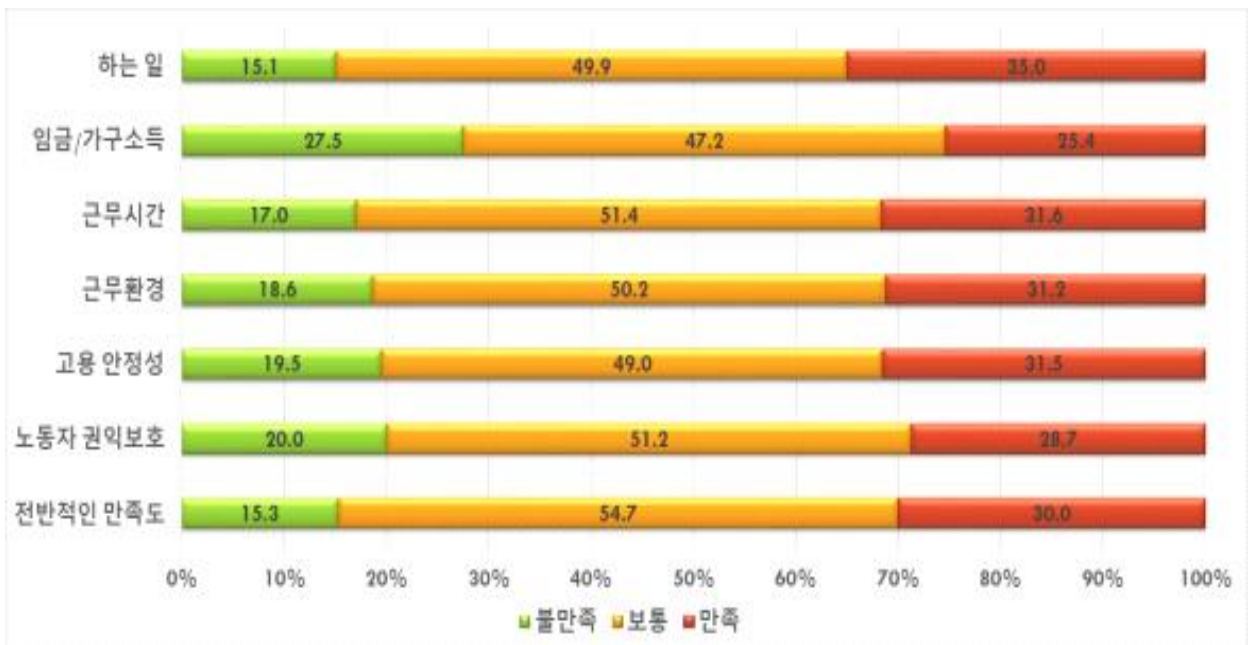


<지역의 경제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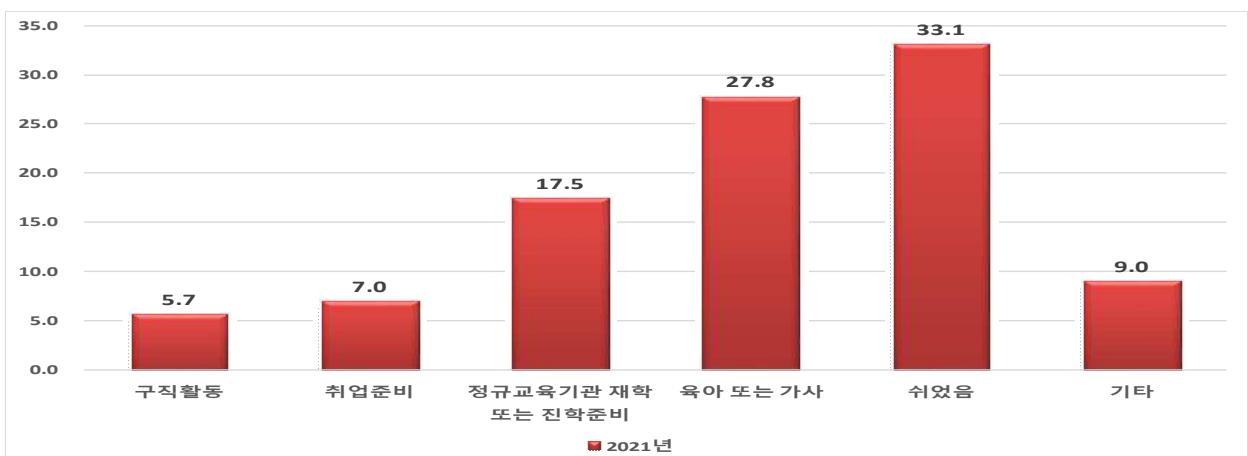
### 3. 일자리 만족도

- 하는 일은 '만족' 35.0%, '보통' 49.9%, '불만족' 15.1%로 나타남
- 임금·소득은 '만족' 25.4%, '보통' 47.2%, '불만족' 27.5%로 나타남
- 근로시간은 '만족' 31.6%, '보통' 51.4%, '불만족' 17.0%로 나타남
- 근무환경은 '만족' 31.2%, '보통' 50.2%, '불만족' 18.6%로 나타남
- 고용 안정성은 '만족' 31.5%, '보통' 49.0%, '불만족' 19.5%로 나타남
- 노동자 권익보호는 '만족' 28.7%, '보통' 51.2%, '불만족' 20.0%로 나타남
- 전반적인 만족도는 '만족' 30.0%, '보통' 54.7%, '불만족' 15.3%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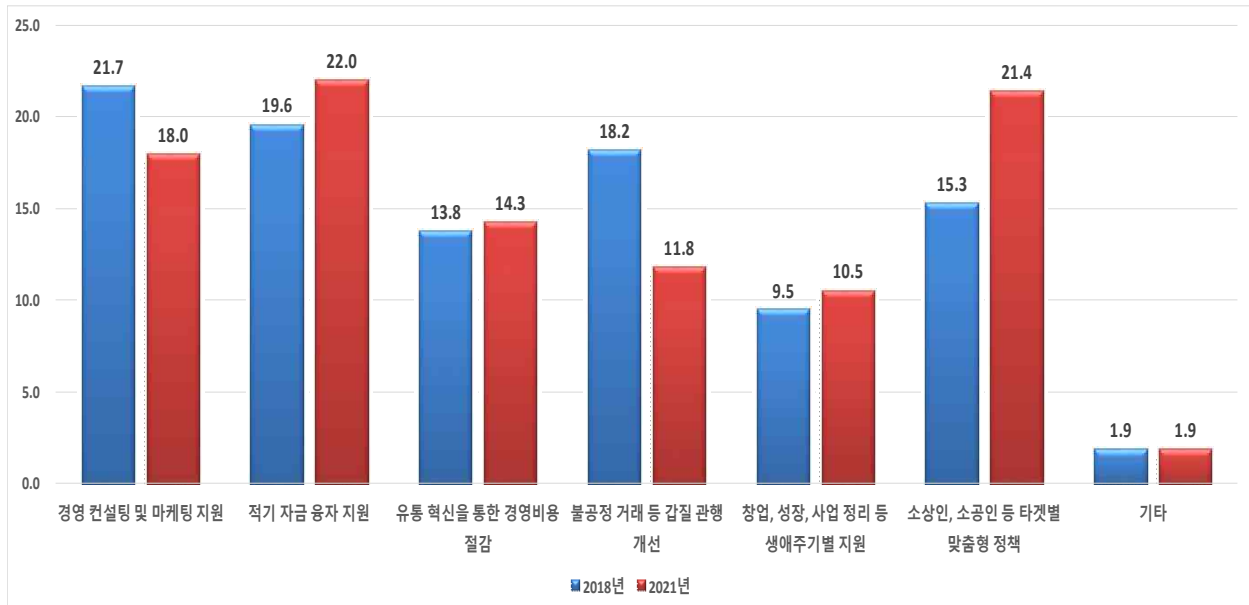
### 4. 일하지 않은 주된 이유

- 일하지 않은 사람은 40.2%로 나타났고, 일하지 않은 이유로는 '쉬었음'이 33.1%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다음으로 '육아 또는 가사' 27.8%, '정규교육기관 재학 또는 진학준비' 17.5% 등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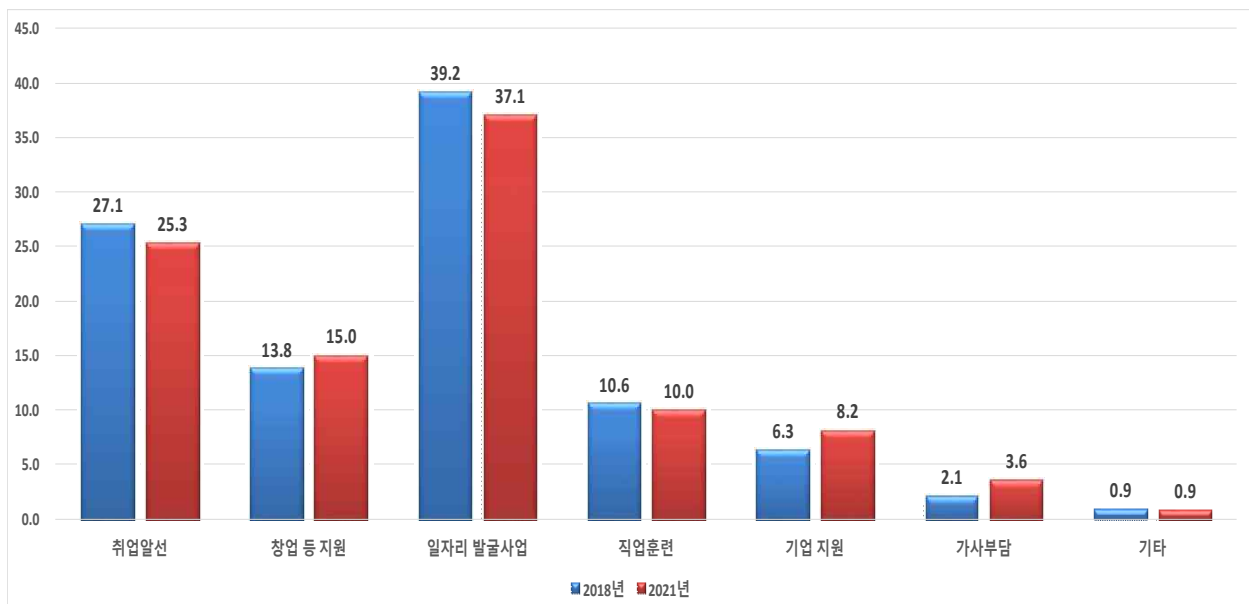
## 5. 소상공인(자영업자) 일자리 지원 분야

- 소상공인(자영업자)을 우선 지원해야 할 분야로는 '적기 자금 융자 지원'이 22.0%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다음으로 '소상인, 소공인 등 타겟별 맞춤형 정책' 21.4%, '경영 컨설팅 및 마케팅 지원' 18.0%, '유통 혁신을 통한 경영비용 절감' 14.3% 등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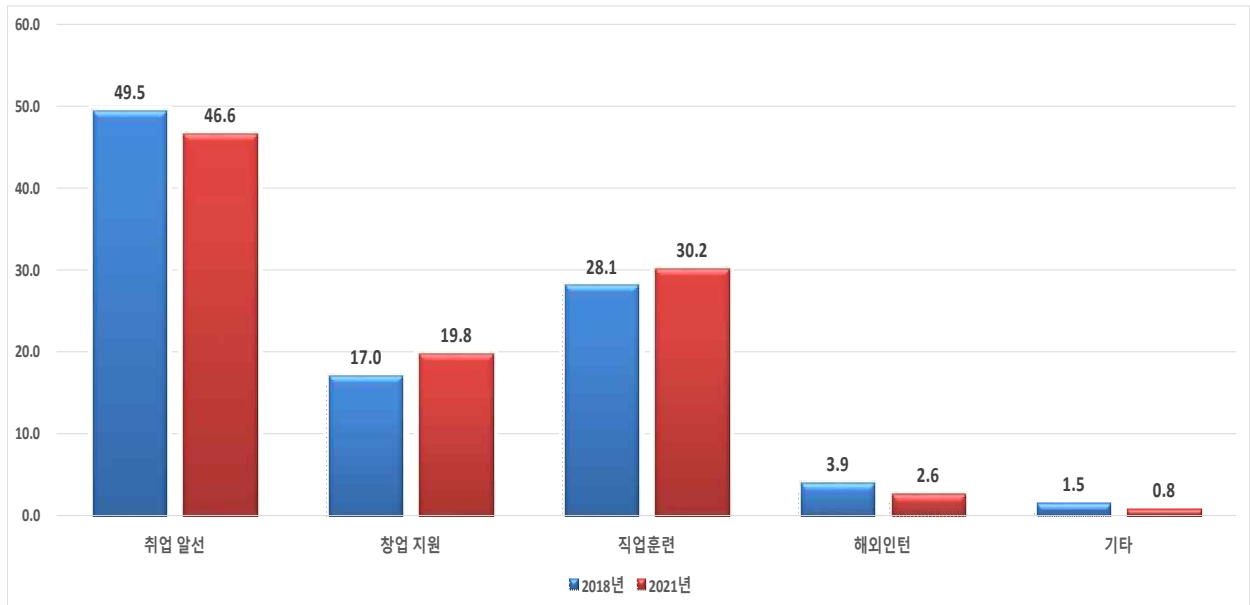
## 6. 일자리 창출 지원 분야

-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가장 우선해야 하는 부분으로는 '일자리 발굴사업'이 37.1%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다음으로 '취업알선' 25.3%, '창업 등 지원' 15.0%, '직업훈련' 10.0% 등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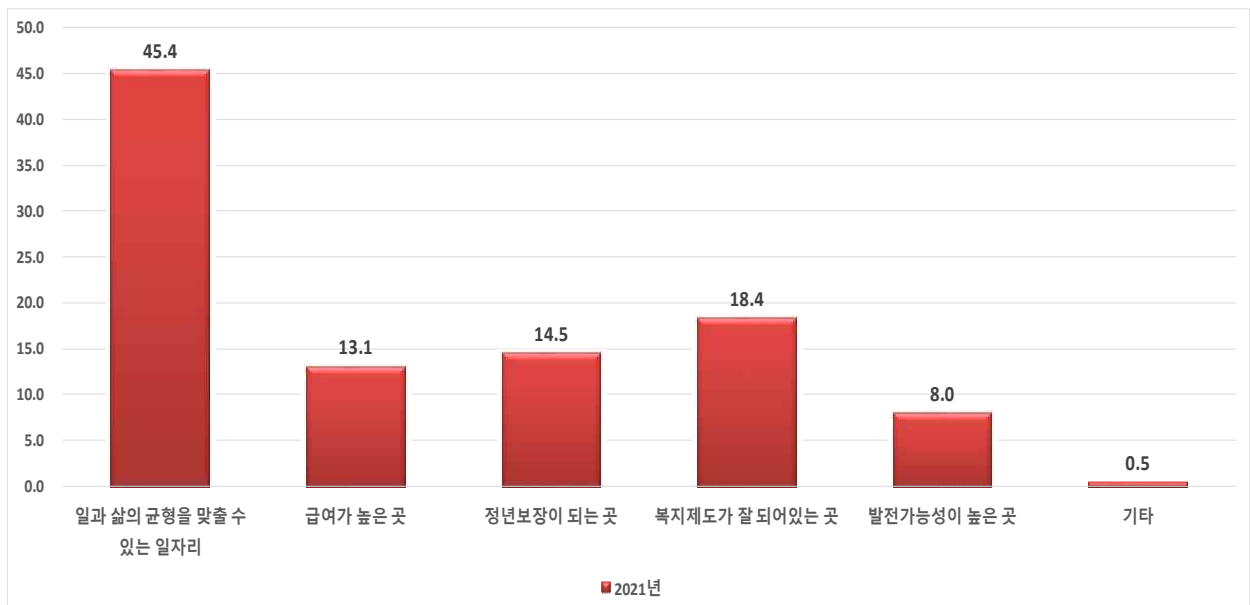
## 7. 청년 일자리 지원 분야

-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우선 확대해야할 분야로는 '취업알선'이 46.6%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다음으로 '직업훈련' 30.2%, '창업 지원' 19.8% 등의 순으로 나타남



## 8. 청년에게 좋은 일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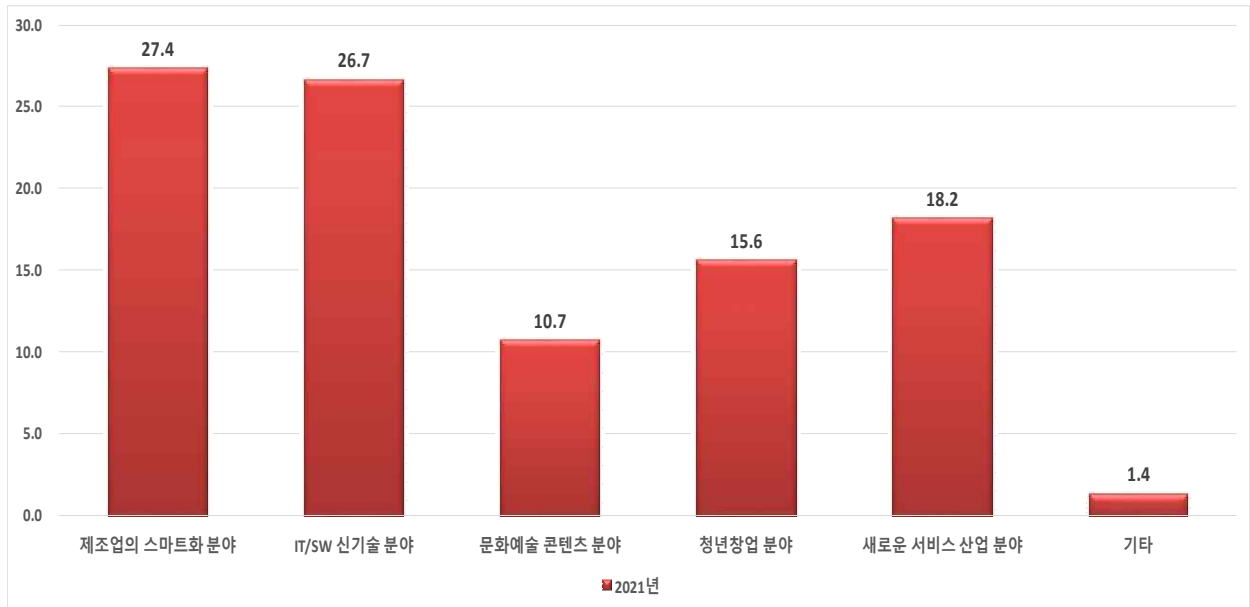
- 좋은 일자리로는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일자리'가 45.4%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다음으로 '복지제도가 잘 되어 있는 곳' 18.4%, '정년보장이 되는 곳' 14.5%, '급여가 높은 곳' 13.1%, '발전가능성이 높은 곳' 8.0% 등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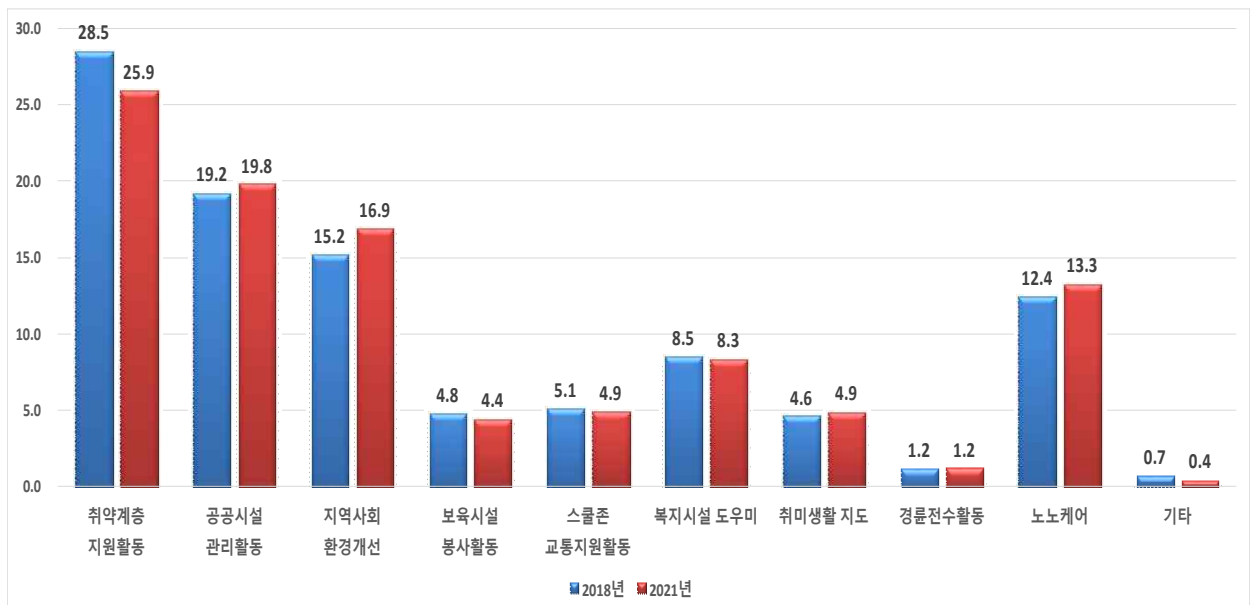
## 9. 청년 일자리 확대 분야

- 청년 일자리 확대해야 할 분야는 '제조업의 스마트화 분야'가 27.4%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다음으로 'IT/SW 신기술 분야' 26.7%, '새로운 서비스 산업 분야' 18.2%, '청년창업 분야' 15.6%, '문화예술 콘텐츠 분야' 10.7% 등의 순으로 나타남



## 10. 노인 일자리 지원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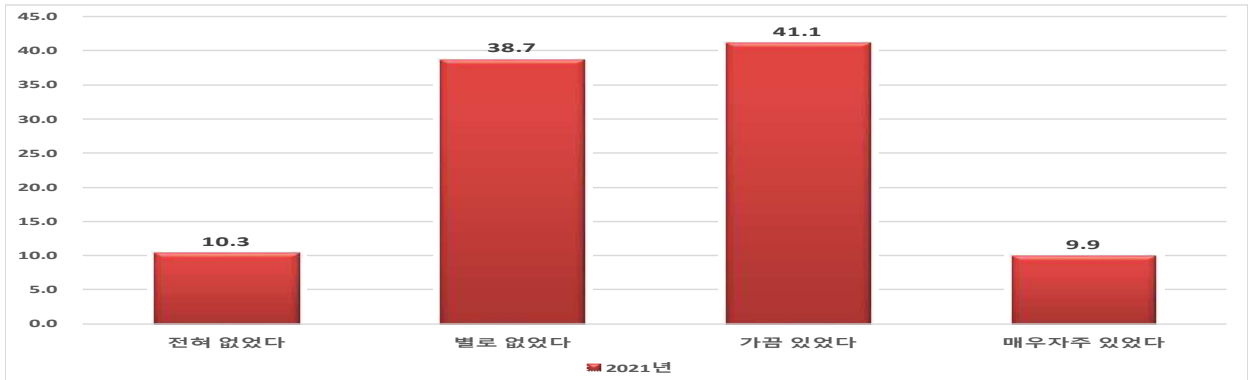
-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우선 확대해야 할 분야로는 '취약계층 지원활동'이 25.9%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다음으로 '공공시설 관리활동' 19.8%, '지역사회 환경개선' 16.9%, '노노케어' 13.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IV. 소득소비

### 1. 생계유지 어려움 경험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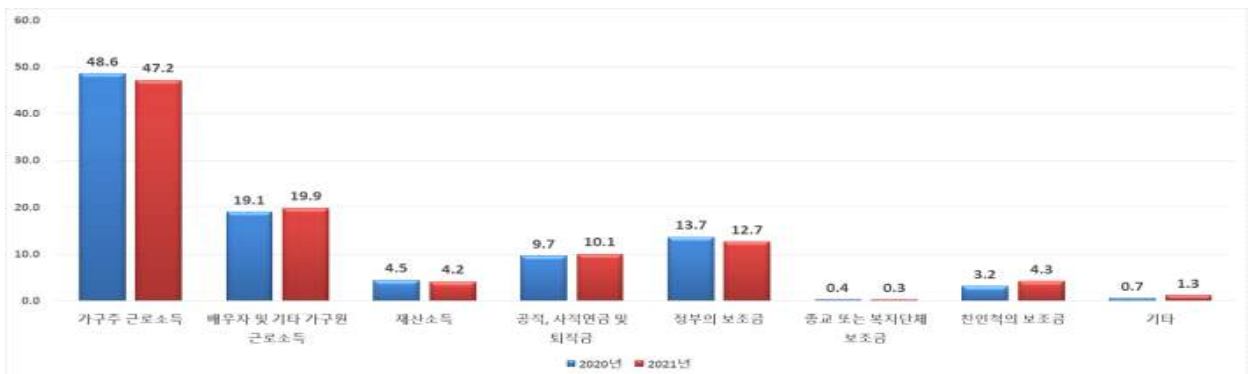
- 생계를 유지하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다'가 51.0%, '없었다'가 49.0%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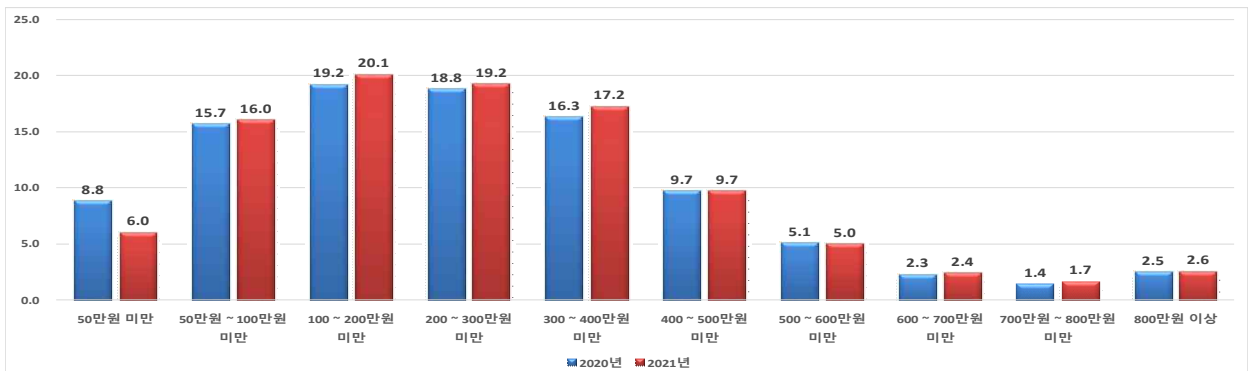
### 2. 가구 월평균 소득

- 가구의 주된 소득원은 '가구주 근로소득'이 47.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배우자 및 기타 가구원 근로소득' 19.9%, '정부의 보조금' 12.7%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월 평균 가구 총소득은 '100~300만원 미만'(39.3%)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고, '100만원 미만' 소득자가 22.0%로 나타남

<가구의 주된 소득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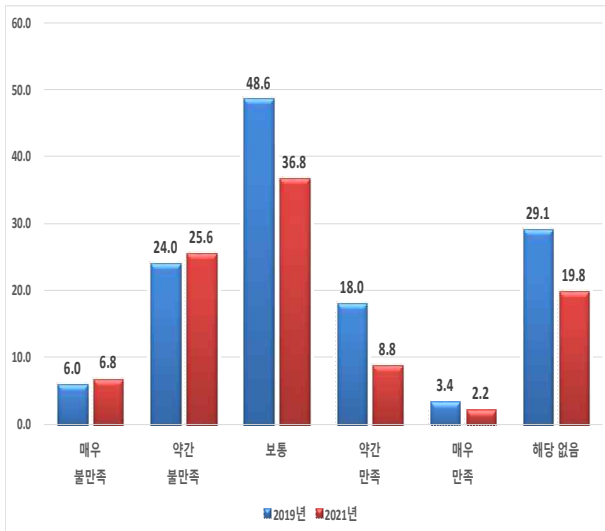
<월 평균 가구 총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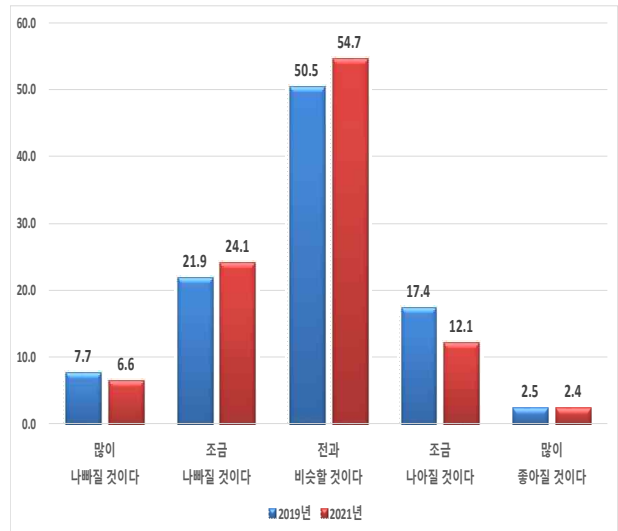
### 3. 소득 만족도 및 장래 가구 소득에 대한 견해

- 소득 만족도는 '만족'이 11.0%, '불만족'이 32.4%로 나타남
  - 2019년에 비해 '만족'이 10.4%p 감소함
- 장래 가구 소득에 대한 견해는 '좋아질 것이다'가 14.5%, '나빠질 것이다'가 30.7%로 나타남
  - 2019년에 비해 '좋아질 것이다'가 5.3%p 감소함

<소득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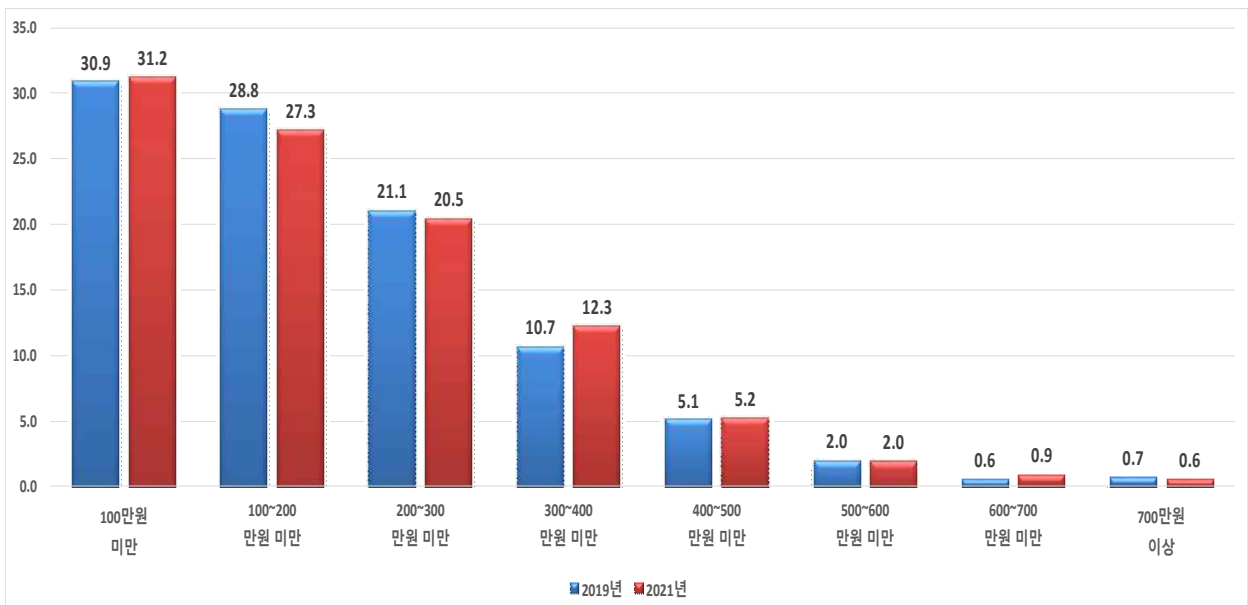


<장래 가구 소득에 대한 견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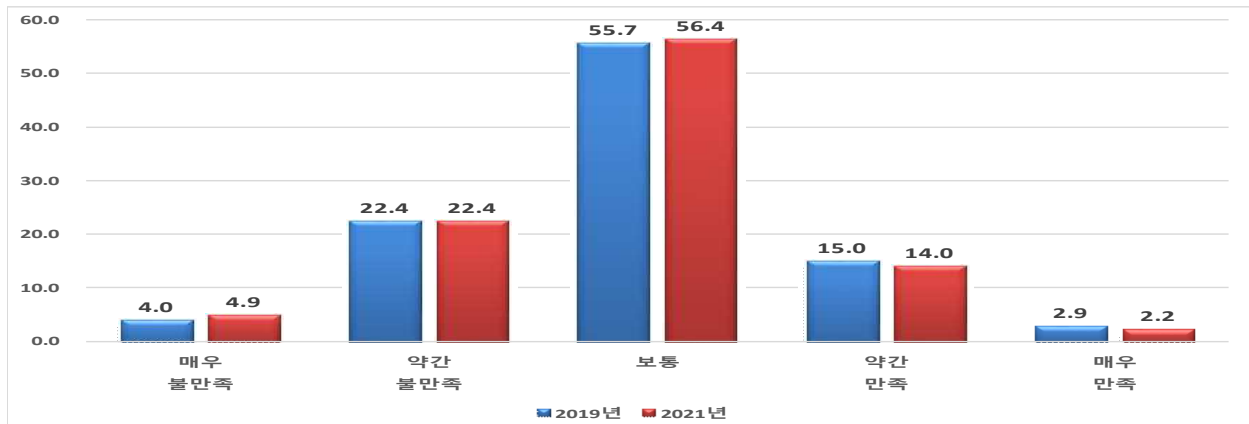
### 4.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

-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은 '100만원 미만'이 31.2% 가장 많이 나타났고, '200만원 미만' 사용하는 가구가 전체의 58.5%를 차지함



## 5. 소비생활 만족도

○ 소비생활 만족도는 '만족'이 16.2%, '불만족'이 27.3%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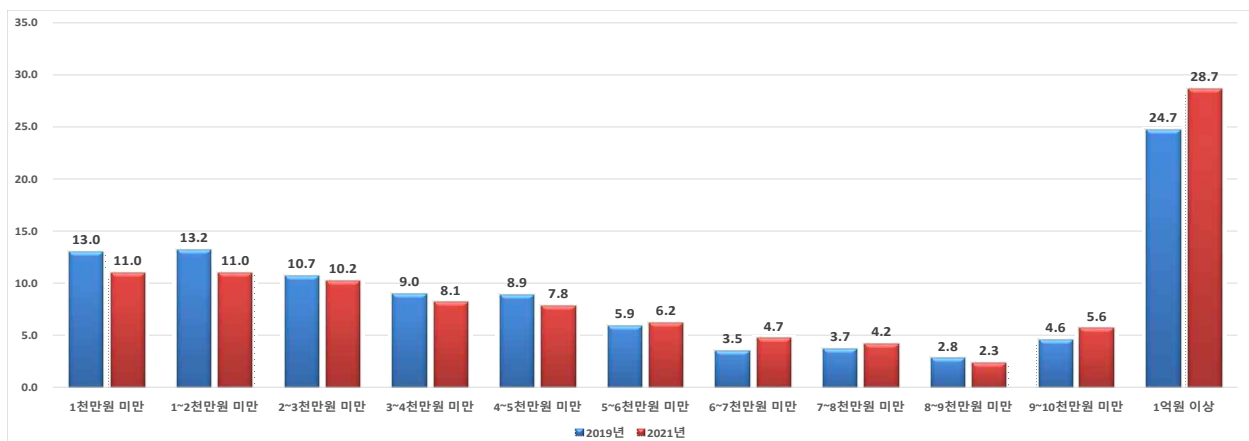
## 6. 가구의 부채정도와 이유

○ 부채가 있는 가구는 42.7%(2019년 42.7%)으로 나타났고, 부채의 금액은 '1억원 이상'이 28.7%로 가장 많이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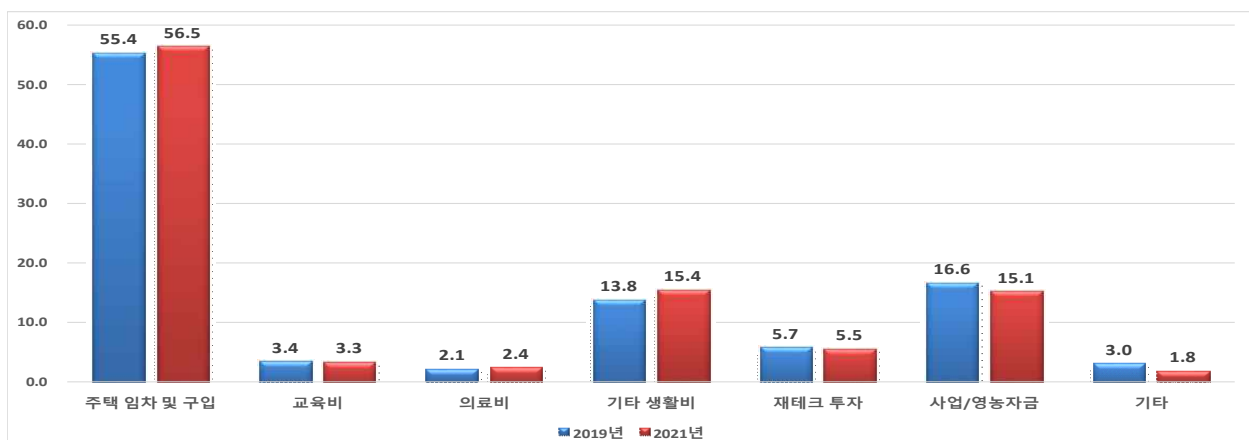
- 2019년에 비해 적은 금액에서의 비중을 감소했고, 높은 금액에서 비중이 증가함

○ 부채의 주된 이유는 '주택 임차 및 구입'이 56.5%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다음으로 '기타 생활비' 15.4%, '사업/영농자금' 15.1% 순으로 나타남

<부채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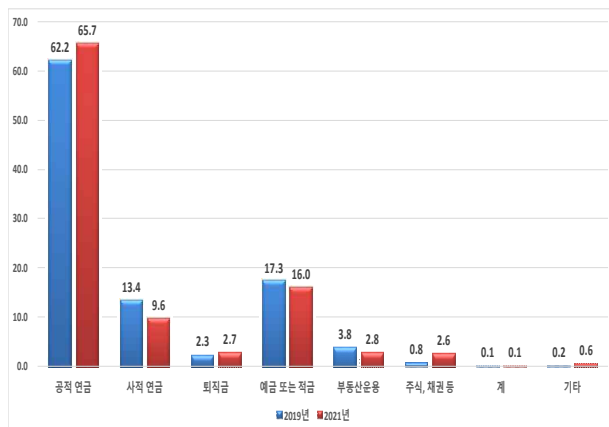
<부채의 주된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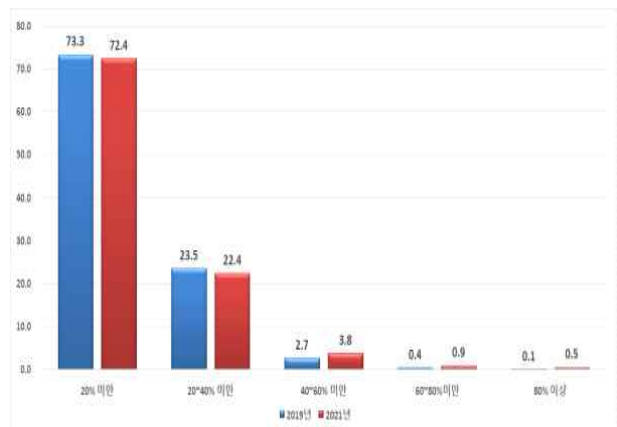
## 7. 노후대비 소득보장

- 노후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은 49.3%(2019년 47.0%)로 나타났으며, 준비하고 있지 않은 사람 중 향후 준비 계획은 '아직 생각하고 있지 않다'가 15.5%, '앞으로 준비할 계획이다' 36.6%, '준비할 능력이 없다' 47.8%로 나타남
- 준비방법은 '공적 연금'이 65.7%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예금 또는 적금' 16.0%, '사적 연금' 9.6%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소득대비 노후투자에 지출하는 비율은 '20% 미만'이 72.4%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다음으로 '20~40% 미만' 22.4%, '40~60% 미만' 3.8% 등의 순으로 나타남

<준비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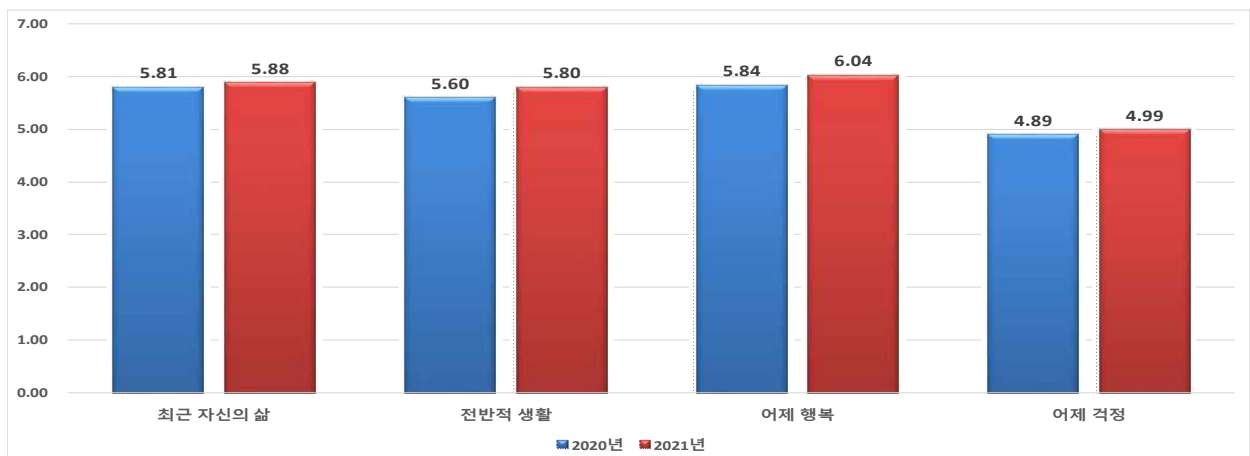


<소득대비 지출 비율>



## 8. 삶에 대한 만족감

- 경남도민의 삶에 대한 만족감 중 '최근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도는 5.88점으로 나타났으며, '전반적 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5.80점, '어제 행복'은 5.04점, '어제 걱정'은 4.99점으로 나타남
- 2020년에 비해 대체로 만족도가 높아진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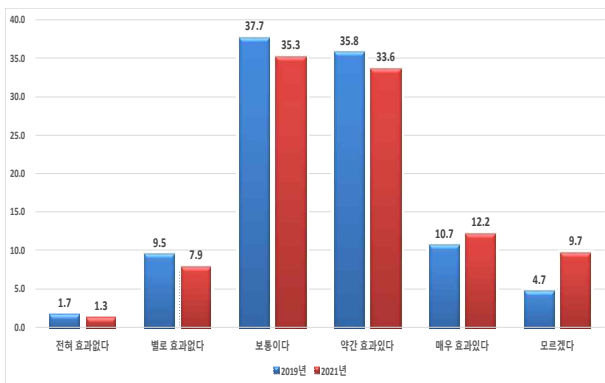


1) 만족도의 최저점수는 0점, 최고점수는 10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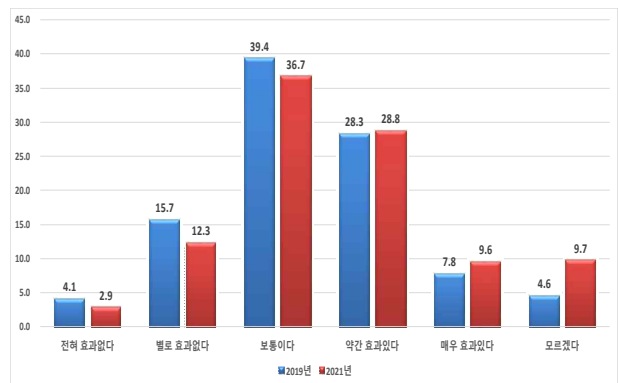
## 1. 학교교육의 효과에 대한 인식

- 지식, 기술습득에 대해 '효과있다' 45.8%, '효과없다' 9.2%로 나타남
- 인격형성에 대해 '효과있다' 38.4%, '효과없다' 15.2%로 나타남
- 국가관 및 사회관 정립에 대해 '효과있다' 32.5%, '효과없다' 16.3%로 나타남
- 생활, 직업, 취업에 활용에 대해 '효과있다' 37.1%, '효과없다' 15.4%로 나타남
- 또래집단과의 관계형성에 대해 '효과있다' 47.1%, '효과없다' 8.4%로 나타남
- 사회성 향상에 대해 '효과있다' 45.7%, '효과없다' 9.1%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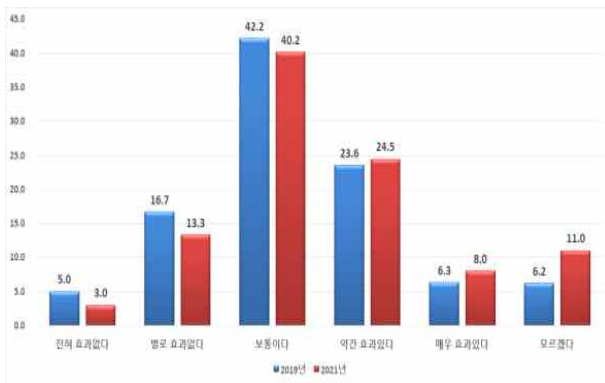
<지식, 기술습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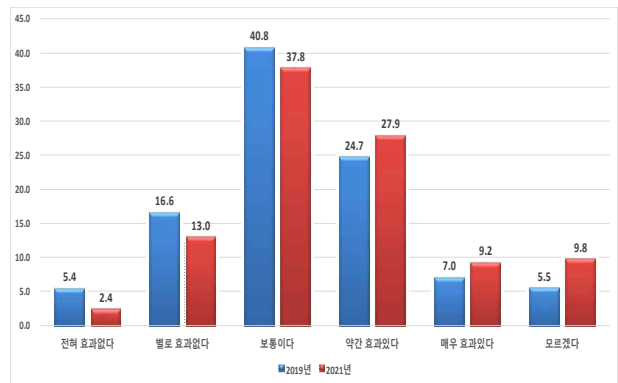
<인격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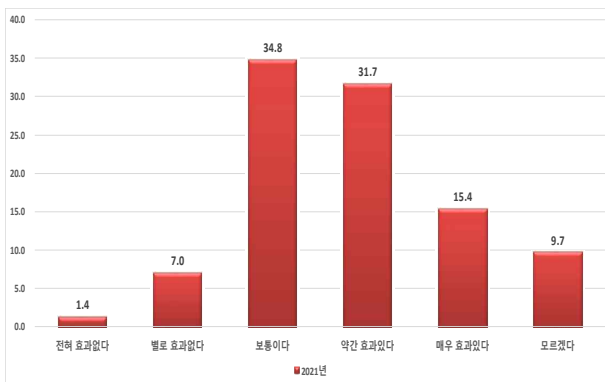
<국가관 및 사회관 정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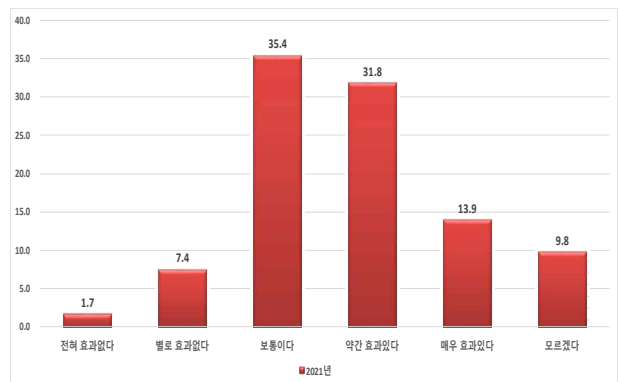
<생활, 직업, 취업에 활용>



<또래집단과의 관계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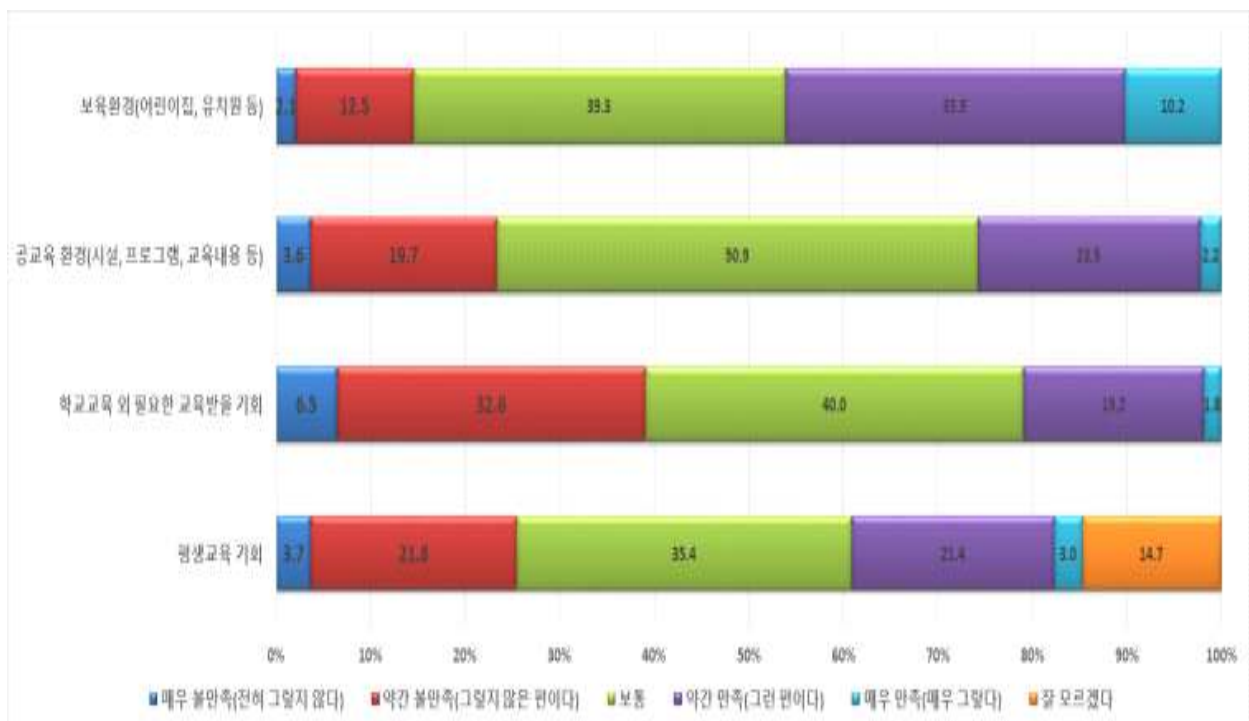


<사회성 향상>



## 2. 교육환경 만족도

- 보육환경(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대한 만족도는 ‘불만족’ 14.6%, ‘만족’ 46.1%로 나타남
- 공교육 환경(시설, 프로그램, 교육내용 등)에 대한 만족도는 ‘불만족’ 23.3%, ‘만족’ 25.7%로 나타남
- 학교교육 외 필요한 교육받을 기회에 대한 만족도는 ‘그렇지 않다’ 39.1%, ‘그렇다’ 21.0%로 나타남
- 평생교육 기회에 대한 만족도는 ‘그렇지 않다’ 25.5%, ‘그렇다’ 24.4%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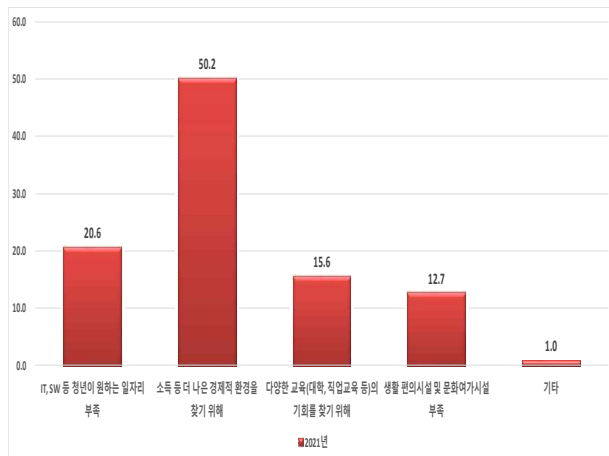


## VI. 부가조사

### 1. 청년인구 유출 및 유입

- 청년인구 유출의 이유는 '소득 등 더 나은 경제적 환경을 찾기 위해'가 50.2%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다음으로 'IT, SW 등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 부족' 20.6%, '다양한 교육(대학, 직업교육 등)의 기회를 찾기 위해' 15.6%, '생활 편의시설 및 문화여가시설 부족' 12.7%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청년인구 유입의 이유는 '고향, 익숙한 곳이라서/부모님 근처에서 함께 살기 위해'가 31.3%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다음으로 '수도권 생활(주택난, 생활비 상승)이 힘들어서' 27.6%, '취업·창업 등 일자리(창업)를 찾기 위해' 24.9%, '여유로운 생활과 정서적인 안정을 위해(위라벨)' 15.3% 등의 순으로 나타남

<청년인구 유출의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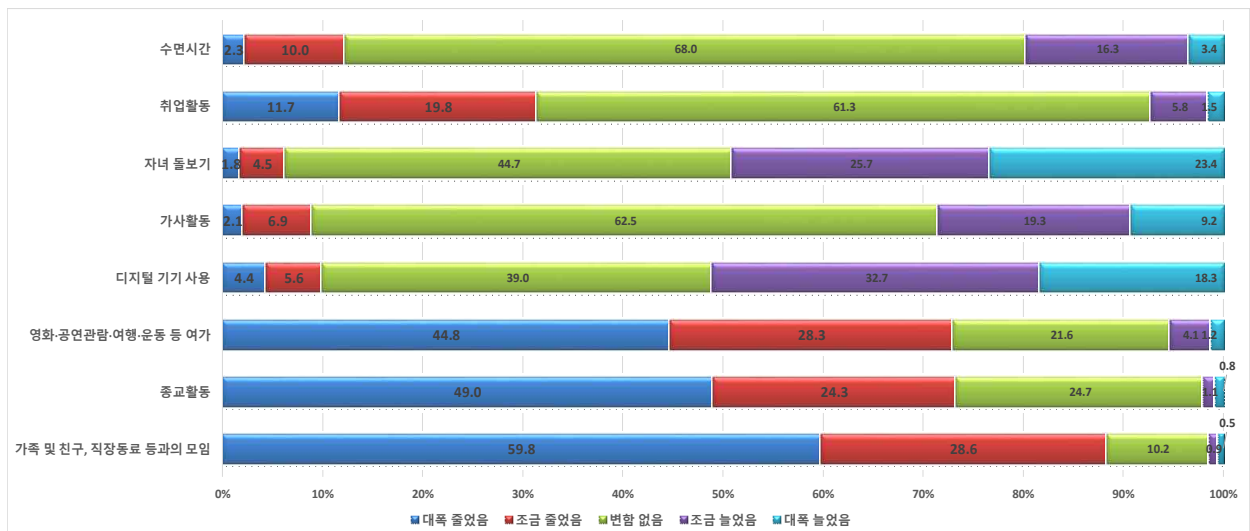
<청년인구 유입의 이유>



### 2. 코로나19로 인한 일상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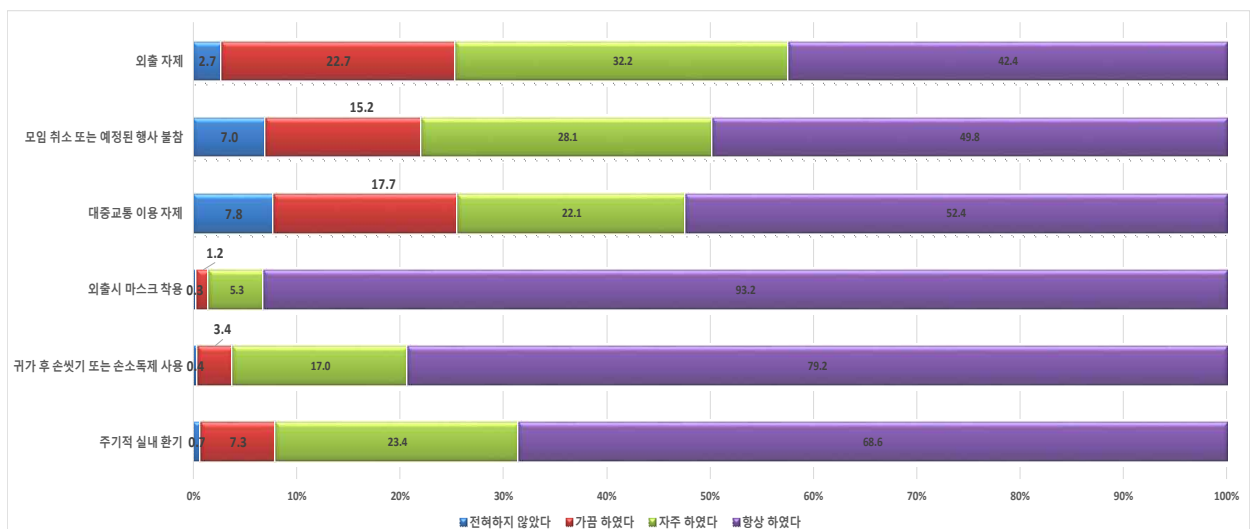
- 수면시간은 '줄었음' 12.3%, '변함없음' 68.0%, '늘었음' 19.7%로 나타남
- 취업활동은 '줄었음' 31.5%, '변함없음' 61.3%, '늘었음' 7.3%로 나타남
- 자녀 돌보기는 '줄었음' 6.3%, '변함없음' 44.7%, '늘었음' 49.1%로 나타남
- 가사활동은 '줄었음' 9.0%, '변함없음' 62.5%, '늘었음' 28.5%로 나타남
- 디지털 기기 사용은 '줄었음' 10.0%, '변함없음' 39.0%, '늘었음' 51.0%로 나타남
- 영화·공연관람·여행·운동 등 여가는 '줄었음' 73.1%, '변함없음' 21.6%, '늘었음' 5.3%로 나타남
- 종교활동은 '줄었음' 73.3%, '변함없음' 24.7%, '늘었음' 1.9%로 나타남
- 가족 및 친구, 직장동료 등과의 모임은 '줄었음' 88.4%, '변함없음' 10.2%, '늘었음' 1.4%로 나타남





### 3. 코로나19로 인한 행동 변화

- 외출 자제는 '전혀 하지 않았다' 2.7%, '가끔 하였다' 22.7%, '자주 하였다' 32.2%, '항상 하였다' 42.4%로 나타남
- 모임 취소 또는 예정된 행사 불참은 '전혀 하지 않았다' 7.0%, '가끔 하였다' 15.2%, '자주 하였다' 28.1%, '항상 하였다' 49.8%로 나타남
- 대중교통 이용 자제는 '전혀 하지 않았다' 7.8%, '가끔 하였다' 17.7%, '자주 하였다' 22.1%, '항상 하였다' 52.4%로 나타남
- 외출시 마스크 착용은 '전혀 하지 않았다' 0.3%, '가끔 하였다' 1.2%, '자주 하였다' 5.3%, '항상 하였다' 93.2%로 나타남
- 귀가 후 손씻기 또는 손소독제 사용은 '전혀 하지 않았다' 0.4%, '가끔 하였다' 3.4%, '자주 하였다' 17.0%, '항상 하였다' 79.2%로 나타남
- 주기적 실내 환기는 '전혀 하지 않았다' 0.7%, '가끔 하였다' 7.3%, '자주 하였다' 23.4%, '항상 하였다' 68.6%로 나타남



## □ 조사개요

- 조사기간 : '21. 8. 27. ~ 9. 15.
- 조사대상 : 도내 15,000가구에 상주하는 만15세 이상 가구원(25,762명)
  - 도내 전체가구 : 1,279천가구(2018 인구주택총조사) 중 1.2% 표본
- 조사인력 : 379명(조사관리자 41, 조사원 259 내검·입력원 79)
- 조사항목 : 5개 부문 150개(도 39, 시군 111), 부가조사 제외
  - 5개 부문 : 주거·교통, 문화·여가, 일자리·노동, 소득·소비, 교육

## □ 자료 이용시 유의사항

- 통계표에 수록된 숫자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되었으므로 총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
- 조사대상 연령 : 연령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경우 만 15세 이상 인구 대상임
- 조사대상 기간
  - 조사대상 기간(시점)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경우 2021. 8. 27. 현재임
  - 「지난 1년」은 2020. 8. 27. ~ 2021. 8. 26. 동안임
  - 「지난 1주」는 2021. 8. 20. ~ 2021. 8. 26. 동안임
- 보기 중 여러 개(1~3순위) 응답이 가능한 문항의 경우 제목의 “(주된 응답)”은 응답 1순위 1개만 응답하였을 때의 결과이고, “(복수 응답)”은 여러 개(1~2개 또는 1~3개) 응답하였을 때 케이스별로 집계
- 통계표 중에서 사용된 부호의 뜻은 다음과 같음
  - : 해당 숫자 없음                      0.0 : 단위 미만